

큰울림 국어 연구소  
 수특 연계 관련 기출 문제  
 part 1. 현대시

(수특 강의와 같은 작품 번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 학생이 공부하기 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ART 1 현대시

2. 고은, 「머슴 대길이」

[2016.03 교육청 고3]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가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뿜지요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높은 나뭇에 없었지요

㉡ 대길이가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훌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겟작대기 뉘어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털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 그가 말했지요  
 ㉣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 납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 대길이가 아저씨  
 ㉥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텃토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 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무슨 주관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틀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재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불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벋긔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한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7의 29.  
 이렇게 옮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였으리.  
 어찌라,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체의 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④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8.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한글을 배워 세상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 : '대길이가 아저씨'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③ ㉢ : '대길이가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변함없이 화자의 삶을 이끌어주었음을 보여 준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 대해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근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원적인 애착이 그려낸 기억의 '그림'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 ②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하기 때문이겠군.
-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려서부터 외지로 떠돈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화자가 이끌렸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군.
-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화자가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겠군.

## 2. 고은, 「머슴 대길이」

37. ①, 38. ③, 39. ⑤

37. ①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③ 대화체의 어조는 (가)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④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⑤ 두 작품은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38. ③

‘대길이가 아저씨’는 현실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현실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배운 한글을 통해 ‘세상에 눈떴다’는 것은 화자가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머슴이었던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길이가 아저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남하고 사는 세상’을 강조한 ‘대길이가 아저씨’의 말에서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 ⑤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서 ‘불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화자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준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39.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고 했으므로, ‘나의 집’으로 이끄는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은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이었으므로, 이곳을 오가며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 ② 화자가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의 여러 방을 오가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며 보낸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그대로 남아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것은 ‘이 틀 속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화자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는 화자가 ‘나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근원적 공간인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 3. 김소월, 「초혼(招魂)」

[2003.3 교육청 고3]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이파리  
또 한 이파리  
시나브로 지는  
지치도록 흰 복사꽃을  
  
꽃잎마다  
지는 꽃잎마다  
굽다랗게 자꾸만  
감기는 서러운 서러운 연륜(年輪)을

[A] ┌ 늙으신 아버지의  
기침소리랑  
└ 곧때 가신 지 오랜 아내랑  
어리디어린 손주랑 사는 곳

버리고 온 '생활(生活)'이며  
나의 벽차던 청춘이  
아직도 되살아 있는  
㉠고향인 성만 싶어 밤을 새운다.

- 신석정, 「망향(望鄕)의 노래」 -

(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B]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招魂)」 -

(다)  
감나무쭝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받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뒤로 넘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설움이요 전(全)소망인 것을  
알아대기는 알아 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계삼, 「한(恨)」 -

#### 5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나)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자기 성찰과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의 화자는 대상과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인생의 유행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52. (가)와 (다)에 나타난 중심 소재의 성격과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가)의 '복사꽃'  
- 떨어짐[落] : 소멸, 계절의 변화.  
- 흰색 : 전통적으로 시에서 애상적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색 짝로 사용됨.  
- 향토적인 소재.  
(다)의 '감'  
- 익음 : 열매, 오랜 세월의 축적.  
- 노을빛 : '노을'의 붉은색이 주는 애상적 정조.  
- 전통적인 소재.

- ① '복사꽃'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복사꽃'은 화자에게 고향을 연상시키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③ '감'에는 내면의 성숙을 염원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④ '복사꽃'과 '감'은 모두 서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복사꽃'과 '감'은 모두 색채적 이미지로 시적 분위기 구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53. [A]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밭은기침 소리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질 배개를 돌아 고이시는 초가집.  
 들꽃같이 수수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나어린 손주가  
 송아지처럼 철없이 뛰놀던 들판.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율격을 살리고 있는 원시(原詩)의 의도는 유지하는 게 좋아.
- ② 가족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는 발상을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③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거야.
- ④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면 조금 더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 ⑤ 고향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물도 몇 개 추가해 보는 것이 좋겠어.

54. [B]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은?

- ① 한바다 복판 용솨움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 ② 처마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 흰 눈이 내려 //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 김광균, 설야 -
- ③ 당신을 따라가다 따라가다/ 그만 빈 갯벌이 되어 눅고 말았다/ 쓸쓸한 이 바다에도 다시 겨울이 오고 물살이 치고/ 돌아오지 못한 채 멈추어 선 나를/ 세월은 오래도록 가두어 놓고 있었다.  
 - 도중환, 심 -
- ④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혼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뜻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유치환, 깃발 -
- ⑤ 기름진 내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널 널 널 가락 맞춰 풀피리나 불고, 나는, 나는, 두둥실 두둥실 봉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덩굴어 보자.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

55. a~c 중,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8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3. 김소월, 「초혼(招魂)」

51. ③, 52. ③, 53. ①, 54. ③, 55. ③

51. ③

(나)에서는 죽은 이와 산 자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시 창작의 중심 동인(動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널 수 없는 거리 때문에 화자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고, 또한 그 거리 때문에 시적 화자는 입을 목놓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도 죽은 이와 산 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거리는 죽은 이와 산 자와 사이의 실제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와 (나) 어디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② (가)와 (다) 어디에도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④ (가)에서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⑤ 대조적인 이미지는 (나)의 '하늘과 땅'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52. ③

(다)에서 '감'은 서러움과 그리움으로 응축된 시적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서러움이 응축되어 있는 소재가 바로 '감'입니다. 3연을 보면 '감'의 붉은 빛깔이 바로 '전생의 내 전 설움이요, 전 소망인 것'이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감'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①

(가)의 [A]에서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기>의 바꿔 쓴 글에서도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54. ③

[B]에는 입과 나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가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만날 수 없는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도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리움과 미련 때문에 선 채로 돌이 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B]에는 간절한 그리움과 미련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에서도 화자는 입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떠나간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풀 길이 없어 오랜 세월 동안 섬이 되어 입이 떠나간 그 곳에 머물러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③에서도 간절한 그리움과 미련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과 신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 ② 눈 내리는 밤의 외로움과 서글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 ④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과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 인식에서 오는 슬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 ⑤ 조화로운 삶이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55. ③

㉠은 살아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공간으로, 죽은 이가 존재하는 곳이다. (나)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는 시구에서도, '하늘'은 죽은 입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땅'은 살아 있는 내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❶

[2007.07 교육청 고3]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캔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혹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썸이 늦는다고 물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돌음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나)  
 구암리 셋강 고모네 집  
 갈대밭 사이  
 배 저어가는 뱃노래  
 배하고 뱃사공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문득 머리에 수건 동여맨  
 젊은 뱃사공 보이는데  
 젊은데 늙은 사람 목청 잘 나온다

휘영청 달도 잘도나 밝아라  
 노 저어라 노 저어  
 너울너울 칠산 바다  
 노 하나 저어 건너간다  
 반짝반짝 별도나 많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  
 강남길 멀고 멀어도  
 노 하나 저어 건너간다

고모네 갈대밭에서

나는 컸다  
 뱃노래 들으며 컸다  
 크면 눈물이 나오는지  
 그 노래 멀어져가며  
 나는 서러웠다  
 고모가 준 갯묵도 먹지 않고  
 노 하나 저어 ㉣건너간다

- 고은, 「고모네 집 뱃노래」 -

(다)  
 ㉠아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상에  
 축문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손이든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 아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밥이슬이 온다.

-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화자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바슐라르는 불꽃은 영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내면의 고독을 자각하고, 시침을 과거로 돌려 추억을 회상한다. 또한 불꽃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며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ㄴ. '원형적 심상'이란, 어느 한 시대의 개인이나 민족 구성원의 차원을 넘어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며 되풀이되는 인류의 보편적 심상을 뜻한다. 그중 '불'의 원형적 심상은 축제, 금기의 파괴, 원초적인 동경, 삶과 죽음의 경계, 원초적인 사랑 등을 의미한다.

- ① 화자는 불꽃의 이미지를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한다.
- ② 화자는 램프불을 떠올리며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 ③ 화자는 불빛에 비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에서 원초적 사랑을 발견한다.
- ④ 화자는 유년 시절의 캔델라불을 떠올리며 자유로웠던 지난 삶을 동경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램프불 - 캔델라불 - 전등불 - 휘황한 불빛 - 실루엣'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추억을 회상한다.

39. ㉠~㉣ 중, <보기>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 보 기 >

시간과 공간은 시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위의 시어 중 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동시에 함축함으로써 현실적인 시-공간을 심리적인 시-공간으로 심화, 확장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0. ㉠~㉥에 대한 아베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그렇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축문 하나는 있어야겠지.
- ② ㉡ : 지금 이 밥상은 세상 그 어느 밥상보다 나은 진수성찬이란다.
- ③ ㉢ : 그럼 잘 알지. 이 어려운 계절에 애비의 제사상을 차리느라 네가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짠하다.
- ④ ㉣ : 살아서는 너에게 고생만 시키고 잘 먹이지도 못해서, 오히려 이 애비는 네가 간고등어 먹는 것을 보고 싶구나.
- ⑤ ㉤ : 무슨 소리니, 오히려 나는 네가 걱정이구나.



#### 4.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지의 축문(祝文)」 ❶

37. ⑤, 38. ④, 39. ④, 40. ①

37. ⑤

(가)는 ‘~에서 ~다’, (나)는 ‘~나 ~라’, ‘노 하나 저어간다’, (다)는 ‘아베도 알지려요’ 등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38. ④

칸델라불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지난 삶이 자유로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39. ④

‘④건너간다’는 시간적으로는 화자의 성장, 공간적으로는 강의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이동을 함축하면서 화자의 삶의 역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40. ①

만술 아버지는 ‘까막눈’이다. 따라서 만술 아버지는 축문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형편에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화자인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축문이 있어야 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4.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지의 축문(祝文)」 ㉔

[2012.03 교육청 고3]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 떠나가 배운 노래를  
집 찾아오는 밤  
논둑 길에서 불렀노라.

나가서도 고달프고  
돌아와서도 고달팠노라.  
열네 살부터 나가서 고달팠노라.

㉑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를

㉒답이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박이며 들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대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윗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큰 독 안에 실린 슬픈 물갈이  
㉓속살대는 이 시골 밥은  
찾아온 동네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듣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㉔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있지 못하고 그대로 간 이야기어니

이 집 문고리나, 지붕이나,  
늙으신 아버지의 착하디 착한 수염이나,  
활처럼 휘어다 붙인 밤하늘이나,

이것이 모두 다  
㉕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일러라.

— 정지용, 「옛 이야기 구절」 —

\* 이치대던 : 성가시게 칭얼대던.

(나)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려요.  
㉖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운사월 보리고개  
아베도 알지려요.

┌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A] 저승길 배고플랴요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여보게 만술(萬術) 아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박목월, 「만술(萬術) 아버지의 축문(祝文)」 —

\* 축문 :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 엄첩다 : ‘대견하다’의 경상도 방언.

\* 응감 : 마음에 응하여 느낌.

(다)

여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르겠네

㉗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에 입을 뵈셔 즐기더니

니릿\*를 하였거니 재양인들 없을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것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광한전 어디메오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뵈셔 본 격 전혀 없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입을 사랑할꼬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까

엇언지 임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심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㉘정학(鼎鑊)\*이 앞에 있고 부월(斧鉞)\*이 뒤에 있어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 된 후에도

임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 나도 일을 가져 남에 없는 것만 얻어  
부용화(芙蓉花) 옷을 짓고 목란(木蘭)으로 주머니 만들어

[B] 하늘께 맹세하여 임 섬기랴 원이러니

┌ 조물(造物)이 시기(猜忌)하는가 귀신이 훼방하는가

└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

— 김춘택,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

\* 광한전 백옥경 :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곳.

\* 니릿 : 아양.

\* 심기시고 : 주시고.

\* 정학 :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부월 : 작은 도끼와 큰 도끼.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분위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상을 전개하면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화자의 현재 처지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공감(共感)'이라고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감응(感應)'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감과 감응은 슬픔이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 사이에서는 물론 사물과 자연물 그리고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와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와 (나)는 시적 표현과 내용을 통해 이러한 공감과 감응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눈물이 고이신 대로 듣고'를 통해 화자와 '어머니' 사이에 공감이라는 정서적 공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기름볼'이 화자의 이야기를 '깜박이며 듣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고달픔에 감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문고리', '지붕', '밤하늘'을 함께 제시한 것은 사물과 자연물이 서로 감응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만술 아비'가 '아베도 알지러요'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아베'가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의 '느껴느껴'로 보아 '굶은 밤이슬'은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인 '망령'이 감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5.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② ㉡ : 배경을 의인화하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6.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는 하나의 시공간 내에 퍼지며 공식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에 통합되면서 통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공시적 확대	㉠의 청자는 '아버지'에서 '어머니', '누이', '그 사람'이라는 가족들로 확대된다.....
	①
통시적 확대	㉡는 '찾아온 동네사람들'을 통해 화자의 이야기에서 동네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②
	㉢는 ㉠와 ㉣의 '그 예전부터' 전해 온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된다.....
통시적 확대	③
	㉠의 화자는 ㉡의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의 일부로 통합된다.....
통시적 확대	④
	㉠의 청자는 ㉣의 청자인 '늙으신 아버지'의 일부로 통합된다.....
통시적 확대	⑤
	⑤

17.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현 상황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고, [B]에서는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화자의 과거 처지와 현재 처지가 대비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읽고 (다)를 감상해 보았다.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는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영향을 받아 창작된 「별사미인곡」의 첫 부분이다. 정철이 높은 관직에 있다가 임금이 바뀌어 있을 때 두 작품을 창작했다면, 김춘택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다가 당쟁에 휘말려 유배당했을 때 「별사미인곡」을 지었다. 정철의 두 작품에는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김춘택은 이 화자를 끌어와 '저 각시'라 칭하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다.

- ① '광한전 백옥경에 입을 뽀셔 즐기더니'는 '저 각시'가 임의 곁에 살며 임의 사랑을 받았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군.
- ②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로 보아 화자는 '저 각시'보다 자신의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③ '원앙침 비취금에 뽀셔 본 적 전혀 없네'는 '저 각시'와 달리 임의 곁에 있어 보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군.
- ④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까'로 보아 화자가 임과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일백 번 죽고 죽어 빠가 가루 된 후에도 / 임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는 임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4.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㉔

13. ㉓, 14. ㉓, 15. ㉓, 16. ㉓, 17. ㉑, 18. ㉔

13. ㉓

(나)에서는 '만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베'에게, (다)에서는 '나'가 '저 각시님'을 향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나)의 공간은 '제사상' 앞입니다. 공간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② (나)에서는 특정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에서는 '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꼴자'를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 ④ (가)~(다)에 모두 자연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4. ㉓

<보기>의 설명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만 아니라 사물과 자연물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를 '기름불'이 '깁빱이며 듣는 모습' 등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의 7연에 제시된 '문고리', '지붕', '밤하늘'도 공감할 수 있는 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함께 제시한 것이 사물과 자연물의 상호 감응을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5. ㉓

'정학'은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이고, '부월'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층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닭이 울도록'은 새벽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 ② '속살대'를 통해 '이 시골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③ '제사상'에 '등잔불'이 없는 상황을 통해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④ '이별인들 갈을손가'는 설의적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이별이 모두 같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 ㉓

㉑의 청자는 '아버지', '어머니', '누이', '그 사람'이라는 가족들뿐 아니라 '기름불', '시골 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㉒의 청자는 '늙으신 아버지'뿐 아니라 ㉑의 청자로 제시된 존재 모두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㉑의 청자가 ㉒의 청자인 '늙으신 아버지'의 일부로 통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7. ㉑

[A]에서 '만술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베'의 '제사상'에 '간고등어 한 손'을 올려 '아베 소원'을 풀어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소금에 밥'으로 보아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에서도 화자는 정성을 다해 '주머니'를 만들어 입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과 떨어져 있어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와 [B] 모두 이러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 ㉔

'길쌈을 모르거니 가부야 더 이룰까'는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도 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말하며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4.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㉓

[2016.06 교육청 고2]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A]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B] 여보게 만술(萬述) 아버지  
니 정성이 업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

- \* 티눈 : 까막눈
- \* 축문 : 제사 때에 읽어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고하는 글
- \* 업첩다 : '대견하다'의 경상도 방언

(나)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제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나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이정록, 「의자」 -

40. (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로 비판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어의 반복으로 화자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41. (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B]에서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만술 아버지'이다.
- ② [A]의 '아베 소원'에 [B]의 '망령'도 응하여 감동하고 있다.
- ③ [A]의 '보릿고개'는 [B]의 '이승 저승'을 다 다니며 겪는 것이다.
- ④ [B]에서 '밤이슬'이 오는 것은 [A]의 '소금에 밥'을 바치는 마음 때문이다.
- ⑤ [B]에서 '업첩다'고 한 것은 [A]에서 '간고등어 한 손'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의자'라는 상징적 소재로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인식과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에게까지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 줄 세상살이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 ①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 경험을 계기로 '꽃도 열매도, 그제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 ②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오라고 한 것은 죽은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말이야.
- ③ 의자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큰애'에게 위로받고 의지했다는 뜻이야.
- ④ '참외밭에 지푸라기'를 깔겠다는 어머니의 말에서 자연물도 '식구'로 느끼며 포용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 ⑤ 어머니는 '의자'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놓여야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드러내고 있어.

#### 4.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지의 축문(祝文)」 ④

40. ①, 41. ④, 42. ⑤

40. ①

(가)는 1연에서 만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2연은 누군가가 이를 보고 만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어머니가 큰애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심화합니다.

[오답피하기]

- ② (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디.
- ③ (가), (나) 모두 비관적 현실 인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디.
- ⑤ (가)는 '아베', '놀러', '가이소' 등을 반복하고, (나)는 '의자'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으나, 그것이 화자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41. ④

'만술 아버지'가 '소금에 밥'([A])을 차려 아버지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에 망령도 응감하여 '밥이슬'([B])이 오는 것입니다. '밥이슬'은 이 응감의 증거가 되는 자연물입니다.

[오답피하기]

- ①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만술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 ② '망령'이 응하여 감동하는 이유는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입니다.
- ③ '보릿고개'는 저승에서 겪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⑤ '엄철다'고 한 것은 '간고등어 한 손'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입니다.

42. ⑤

어머니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 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살이의 이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의자'를 내놓는 것과 같다. 즉,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위안이자 의지가 되는 '의자'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이치를 전달합니다. '의자'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놓여야 가족끼리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오답피하기]

- ① 2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3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의자'는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것, 삶에 대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위로를 받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 ④ 4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한용운, 「알 수 없어요」 ❶

[2013.06 모평 고3]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문득개**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닢 놓고 앉았다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A]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게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쩡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짙었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주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

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簫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는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울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꽃뿔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 턱 반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

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㉔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㉕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㉖ : '타고 남은 ~ 뿔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변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듯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듯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듯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듯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듯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5. 한용운, 「알 수 없어요」 ❶**

13. ④, 14. ①,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3. ④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합니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 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② (가), (나)에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매화에 말을 건넨 부분이 대화체에 해당합니다. 독백체는 (가)의 뒷부분과 (다)의 일부에만 나타나지만, (다)에서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색채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이다. '백옥함', '청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에는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사되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나)에서만 나타납니다. (나)의 '틸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에는 '구비구비'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4. ①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현상 어디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② (나)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③ (나)에는 뚜렷한 시상 전환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의 경우는 1~5행은 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6행은 이러한 임(진리)을 향한 구도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 ④ (가), (나) 모두 자연현상을 가져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경우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의 경우 사랑을 자연과 관련해 빗댄 것이지 상황과 자연현상의 '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⑤ (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5. ③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③의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조적이며,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으로,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로 이해 가능합니다.
- ⑤ ㉣'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 ⑤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답피하기]

-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을 이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연에 밝혀졌습니다.
- ④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17. ⑤

(나)의 '부뚝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부뚝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남이 떠나고 난 뒤 부채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오답피하기]

- ① '부뚝가'에서 반복되는 시련을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닙니다.
- ② '부뚝가'는 나와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닙니다. '수막'은 남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입니다.
- ③ '수막'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나, '부뚝가'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나, '부뚝가'는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8. ④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일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지,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웃'은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지상의 화자와 천상의 '달, 별'은 군신 간 수직적 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③ 신하인 화자가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임금'이 맞습니다.
- ⑤ 차가운 '양금'으로 신하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넘겨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한용운, 「알 수 없어요」 ㉔

[2002.06 교육청 고3]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랴.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梅花) 향기(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曠野)」 -

(나)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㉑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언뜻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간,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쥐며 재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앉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짜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열에 바우살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

- \* 샷 : 샷자리, 갈대로 엮어서 만든 자리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들었다.
- \* 덜용배기 :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질용배기
-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를 태워 담은 화톳불
- \* 나긋손 : 저녁 무렵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시간적인 배경이 겨울로 설정되어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 ④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진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1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연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자연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미적 감동을 준다. 더 나아가 자연은 인간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방법을 자연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 ① (가)의 ‘바다’
- ② (가)의 ‘강물’
- ③ (나)의 ‘장마’
- ④ (다)의 ‘짜락눈’



## 5. 한용운, 「알 수 없어요」 ②

17. ④, 18. ⑤, 19. ④, 20. ④, 21. ⑤

17. ④

(가)의 화자는 현재 겨울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 것은 봄이 오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나)의 화자는 어둔 밤을 지킵니다. 이런 행동 역시 언젠가는 밝은 아침이 오리라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다)의 화자가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화자는 모두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소망하는 세상이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⑤

(다)의 화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화자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 속에서도 정갈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견뎌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화자가 갈매나무를 떠올린 것은 이 나무가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속성과 자태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화자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 ④

(가)의 화자는 지금 눈이 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위에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들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화자가 현실과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충고는 ④입니다.

[오답피하기]

①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인내만으로 상황을 이겨내려 한다는 점에서 (가) 화자의 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20. ④

(나)의 주된 표현 방식은 'A는 누구의 B입니까.'이다. 여기서 A는 '자연 현상'이고, B는 '절대자의 자취'입니다. 결국 화자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절대자의 모습을 대하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구는 주로 청각적 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 변형한 것이 ④입니다.

21. ⑤

화자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은인자중입니다. 은인자중이란 참고 견디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6. 이성부, 「누룩」

[2008.09 교육청 고1]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북관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나)

바위가 그럴 수 있을까  
쇠나 플라스틱이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모두 높다랗게 치켜든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내 하늘을 향하여  
뾰족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겨울이 지쳐서 피해 간 뒤  
온 세상 새싹과 꽃망울들  
다투어 울긋불긋 돌아날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다가

[A] 초여름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난 듯  
윤나는 연록색 이파리들 돌아 내고  
별보다 작은 꽃들 무수히 피워 내고  
양징스런 열매들 가을내 빨강게 익혀서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상에 올리고  
늪어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을까  
대추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 김광규, 「대추나무」 -

(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철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B]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일곱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대상이 지닌 양면적 속성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상의 미덕을 부각하고 있다.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하늘도 다 끝나’, ‘비 한 방울 내리잖는’, ‘북쪽 툰드라’ 같은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② 화자는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는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가로막는 장애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에 드러나 있다.
- ⑤ 밝은 미래가 도래하리라는 화자의 믿음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에 담겨 있다.

15. [A]와 [B]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색채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는 생성에, [B]는 소멸과 생성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A]는 대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B]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다른 대상을 위한 이타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6. (다)의 창작 과정을 추리하여 <보기>와 같이 메모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시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술을 빚는 과정 : 밥과 같은 재료에 발효제인 누룩을 섞은 다음 물을 부어 숙성시킨다.
- 누룩을 발효시켜 술을 빚는 과정에 비유하여 시적 의미를 표현한다.

	표현하고 싶은 의미	표현된 시구
누룩이 뜨기 전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 ]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 ㉡ ]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 ㉢ ]	
누룩이 뜨는 조건	희망 실현을 위한 희생.....[ ㉣ ]	
누룩을 넣어 술을 빚음	희망한 세상이 펼쳐짐.....[ ㉤ ]	
빚어진 술		

- ① ㉠ :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 ② ㉡ : 나자빠져 있다가
- ③ ㉢ : 알맞은 바람 만나
- ④ ㉣ : 죽어 썩어 문드러져
- ⑤ ㉤ : 해 솟는 얼굴

## 6. 이성부, 「누룩」

13. ③, 14. ③, 15. ③, 16. ①

13. ③

(나)와 (다)는 대상 즉 '대추나무'와 '누룩'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간적 속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의인화의 표현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나)에서는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등의 표현에서 '대추나무'의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고, (다)에서는 '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나자빠져 있다가', '저 혼자서 찾는 길이' 등의 표현에서 '누룩'이 변화하는 과정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 ③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을 미래의 화자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 즉 현재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회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이 감회는 무한한 기쁨을 줄 수 있기에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 즉 고난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③은 이 표현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가로막는 장애로 보았으므로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정반대로 파악하였습니다.

15. ③

[A]와 [B]에서는 대상의 변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 모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A]에서는 '대추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유익한 일을 하는 변화를, [B]에서는 '누룩'이 '썩어 문드러져' '춤도 되고 기쁨도 되'는 변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A]와 [B] 모두 대상의 변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①

누룩은 스스로가 숙성되어 만들어지고, 이 누룩을 밥과 같은 재료에 넣어 물을 부으면 밥이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룩은 스스로가 '썩어 문드러진다.' 즉 누룩은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남을 이롭게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3연에서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은 누룩이 스스로가 희생되는 과정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로는 2연의 '업동설한'과 같은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7.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2002.11 교육청 고1]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뜻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

(나)  
 향단(香丹)아 그뱃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깊은 삼림대(森林帶)를 끼고 돌면  
 ㉢  
 ㉣  
 고풍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산비탈 넉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  
 ㉦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  
 ㉨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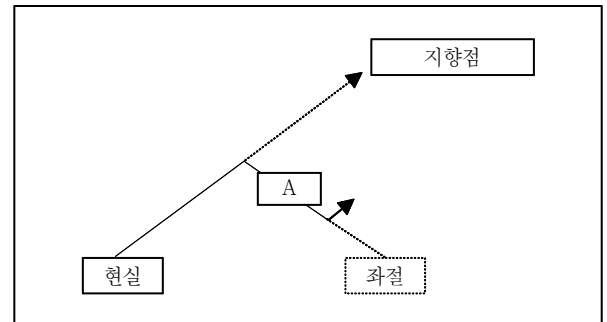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또옥뚝 따지 않으렵니까?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8점]

- ①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 ③ 인간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9.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A]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제1연                      ② 제2연                      ③ 제3연
- ④ 제4연                      ⑤ 제5연



20.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 보 기 > —

시에서 시적 언어를 통해 어떤 형상이 우리의 머릿 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표현한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특히 대상의 협찬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표현된 것을 역동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1. ㉢를 (나)에 나오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표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머니, 당신은 저 하늘을 알고십니까?..... ①  
 채색한 구름 위로 그네 타고 오르면..... ②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 노닐고..... ③  
 내 가슴 울렁이게 하는..... ④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을 알고십니까?..... ⑤

22.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 태도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인 요소만을 주목한 것은?

- ① 시인이 창작한 다른 작품을 조사하여 이 작품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② 문맥을 고려하여 '어린 양, 비둘기' 등의 상징적 의미를 추리·상상한다.  
 ③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일제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상한다.  
 ④ 현실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작품이 어떤 의미로 느껴질까를 생각해 본다.  
 ⑤ '어머니'를 반복한 표현이 시인의 성장 과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 7.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18. ①, 19. ④, 20. ①, 21. ③, 22. ②

18. ①

(가)는 깃발의 모습을 통해 이상향을 추구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나)는 그네를 타는 춘향을 통해 역시 인간의 이상향 추구하고 좌절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낭만적, 목가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다)는 모두 이상향을 동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 ④

(나)의 4연에서 그네를 타고 하늘로 향하려는 시적 화자가 서(西)로 유유히 가는 달과 달리 자신은 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20. ①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역동적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가운데 이처럼 대상의 힘찬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다. ㉠에서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는 형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②, ③ 시각적 이미지

④, ⑤ 청각적 이미지

21. ③

(나)의 '나비새끼 피꼬리'는 (나)의 시적 화자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 '먼 나라'에는 (다)의 시적 화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이나 대상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가 그곳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어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22. ②

'내적인 요소만을 주목한다'는 말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비유, 상징, 이미지, 어조, 표현 방법 등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문학 작품에 대한 내제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작품 외적인 요소와 관련시키지 않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내적 요소만을 주목하여 감상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답피하기]

①, ⑤ 작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한 것으로 외제적 감상 중에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③ 시대 상황에 중점을 두어 감상한 것으로 외제적 감상 중에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④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한 것이므로 외제적 감상 중에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9. 정지용, 「춘설(春雪)」 ①

[2010.03 교육청 고3]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섯똥!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깃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것
- \* 웅승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고
- \* 핫웃 : 숨을 두어 지은 웃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다)  
 매화는 요염이요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요 지기를 만나온 듯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술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리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버들은 실이 되고 피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뒤편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짹짹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주락하여 :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 북 : 베틀에서 날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 연류간(烟柳間) :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 현포(玄圃) : 선경과 같이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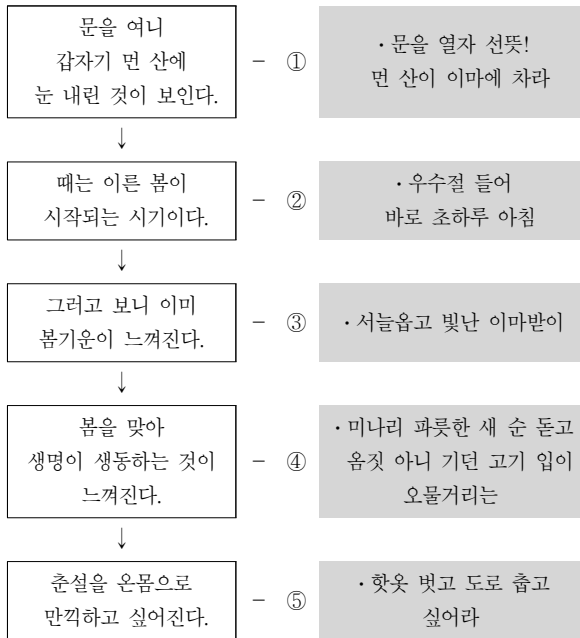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5.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6.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의 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차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는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8. ㉠과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는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는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는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9. 정지용, 「춘설(春雪)」 ①

13. ②, 14. ②, 15. ③, 16. ④, 17. ④, 18. ③

13. ②

(가)는 춘설의 모습과 미나리, 물고기 등을 시각적인 심상과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다양한 소재를 시각적·후각적으로 제시하여 봄날을 즐기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에는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③ (나)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는 계절적 배경이 봄이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④ (다)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장소를 이동하며 자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 ⑤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 감상을 덧붙이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4. ②

(가)의 화자는 갑자기 내린 춘설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각종 자연물을 완상하며 봄날의 흥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물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어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③

①은 시의 상황으로 '문을 열자 섣뫼!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구절을 통해 문을 열어 보니 먼 산에 갑자기 눈이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우수절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에 제시된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늘옅고 빛난 이마반이'는 춘설을 보고 느낀 감각으로 봄기운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 움짖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에서 봄을 맞아 자연이 생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춘설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은 마지막 연에 드러납니다.

16. ④

이 시는 전반부에서 '없는다', '없다' 등의 부정적 서술어를 반복하여 외면적으로 '새'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는 후반부에서 내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거센 바람을 거슬러 가는 존재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목의 '출가'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④ 대상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으며, '자취', '체중', '자리', '체취'는 점층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17. ④

(다)에 산행을 다니며 느끼는 흥겨운 심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의 표현은 흥겨운 심정의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자연을 묘사하는 관습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② 세로로 길게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피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베틀에서 실 사이로 복이 오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18. ③

㉠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연물의 의미이며, ㉡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유희이나 고난 등 새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9. 정지용, 「춘설(春雪)」 ㉔

[2006.06 교육청 고2]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힌 뿔부리와  
서늘롭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나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용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㉑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옴짓 아니 기던 : 움직이지 않던  
\* 햇웃 : 숨을 두어서 지은 웃

(나)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㉒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㉓어둠이노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고은, 「속(續) 눈길」 -

(다)  
초라한 지붕 씌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밤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한 냉쿨이 사그러붙던 ㉔뻘. 지붕 밑 양주(兩主)\*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딱딱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꿰어 들고 초라한 지붕, 씌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 오장환, 「모촌(暮村)」 -

\* 양주(兩主) : 바깥 주인과 안 주인, 즉 부부를 뜻함.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그리움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④ 엄숙한 어조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16. (다)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 소설로 바꾸어 쓸 것
- 원시(原詩)의 창작 의도, 시적 상황을 유지할 것

- ① 현정 : 시간적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해야겠어.
- ② 수연 : 양주가 밤새워 싸운 이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사실감을 살려야겠어.
- ③ 철수 : 시적 화자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묘사하고 있는 점을 살려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해야겠어.
- ④ 정호 : 초라한 지붕, 씌어가는 추녀, 움막 등의 배경 묘사를 통해 당시의 쇠락한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야겠어.
- ⑤ 영미 : 양주가 '새 바가지 꿰어 들고' 움막을 나서는 대목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희망에 부른 모습으로 표현해야겠어.

17.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㉑에 담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젠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어.
- ② 나쁜 봄보다는 역시 겨울이 좋아.
- ③ 서늘한 기운을 통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 ④ 서러운 현재보다는 인정 넘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 ⑤ 봄이 왔으니 꽃구경을 가려면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겠어.

18. ㉑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纖細)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② 마음의 기(旗)는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 그 일이라
- ③ 이른 봄 수풀이 초록빛 들어 풀 내음새 그윽하고가는 댓잎에 초승달 매달려 애뜻한 밝은 어둠을너 몹시 안타까워 포설거리며

훗훗 목메었느니

- ④ 겨울 눈길 지나며 /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있는시린 보릿잎에 얼굴 대보면 / 따뜻한 피만이 열 수 있고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니다
- ⑤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위에 /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부정적 상황을 상징한다.
- ② ㉠, ㉡은 모두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 ③ ㉠은 시적 화자가 시련에 빠진 상태, ㉡은 추운 겨울의 물리적 시간을 의미한다.
- ④ ㉠은 시적 화자를 방황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은 인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 ⑤ ㉠은 시적 화자가 도달한 평화와 안정의 상태, ㉡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

9. 정지용, 「춘설(春雪)」 ㉠

15. ㉡, 16. ㉡, 17. ㉢, 18. ㉡, 19. ㉡

15. ㉡

(가), (나), (다) 모두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번이 정답입니다.

16. ㉡

(다)에는 절망과 좌절로 인해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나서는 양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번은 이런 시적 상황과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17. ㉢

시적 화자는 춘설을 통해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햇옷을 벗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18. ㉡

㉡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으므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의 '차가운 아름다움', ㉢의 '밝은 어둠', ㉣의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의 '외로움 눈부심'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번에는 역설적 표현이 없습니다.

19. ㉡

(나)의 '어둠'은 시적 화자가 그 동안의 고통과 방황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과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한 무념 무상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의 '밤'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번이 정답입니다.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①

[2002.10 교육청 고3]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홀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毒) 안 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밤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나)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①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울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

(다)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白日)이 없을소나.

머언 미개(未開)스적 유풍(遺風)을 그대로  
성신(星辰)과 더불어 잠자고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熱愛)하되  
삼가 애련(哀憐)에 빠지지 않음은  
- 그는 치욕(恥辱)임일레라.

나의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에겐  
가장 옳은 증오를 예비하였나니.

┌ 마지막 우러른 태양이  
두 동공(瞳孔)에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로  
㉠ 내 어느 불의(不意)에 짐승처럼 무찔리기로  
오오, 나의 세상의 거룩한 일월(日月)에  
└ 또한 무슨 회한(悔恨)인들 남길소나.

- 유치환, 「일월(日月)」 -

13. (가)~(다)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는?

- 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주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장차 닥쳐올 상황을 예감하며 절망하고 있다.
- ④ 현실 상황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실을 떠나 이상 세계로 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14. (가)를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하여 감상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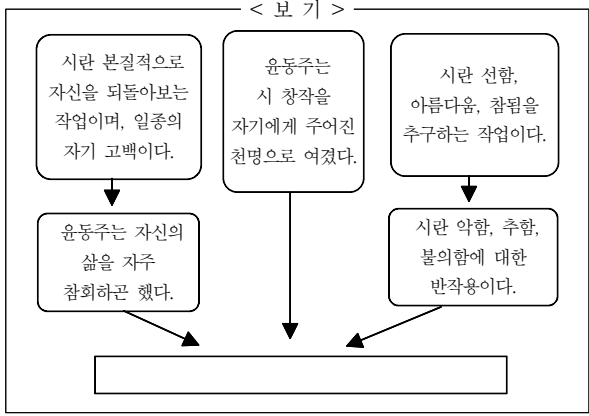
- ① ‘독’, ‘막음날’, ‘찢기우고’ 등의 시어는 강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이 시의 어조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 ② 그 위험한 ‘독’을 차고 다니다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리 승냥이가 몸이 아닌 마음을 노린다는 게 말이 돼?
- ③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나는 의롭지 못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
- ④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작품이므로, 이 시에 나오는 ‘이리’나 ‘승냥이’는 일제의 폭력이나 압박이라 볼 수 있겠는데.
- ⑤ 이 시의 작가가 주로 순수 서정을 노래한 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런 사람들마저 분노하게 할 정도로 극악했다고 볼 수 있어.

15. 다음은 (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연(聯)을 (나)에서 고르면?

창 밖을 보던 화자의 시선이 방 안으로 향하면서 이 시는 시작된다. 시적 화자는 방 안밖의 풍경을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인의 인식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한동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던 화자는 다시 외부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화자의 태도는 변화를 보인다.

- ① 제 4연                            ② 제 5연                            ③ 제 6연  
 ④ 제 7연                            ⑤ 제 8연

16. <보기>는 ㉠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의미를 탐색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  
 ②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부끄러움  
 ③ 멀리 떨어진 가족을 잊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④ 현실을 외면한 채, 언어 유희에 불과한 시의 미적 세계에 빠져 지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⑤ 현실에 대한 대응이 치열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성찰마저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데에서 오는 부끄러움

17. ㉡을 (가)에 나와 있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고쳐 쓸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막음날까지 내 혼(魂)을 지키던 마음이.....①  
 허무함에 휩싸여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될 때면.....  
 ②  
 내 비록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일지라도.....  
 ③  
 오오, 외로운 혼(魂)이라도 지키기 위해.....  
 ④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⑤

## 11. 율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①

13. ④, 14. ①, 15. ⑤, 16. ⑤, 17. ②

13. ④

(가)는 불의(不義)한 시대에 맞서서 자기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독'을 차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에서 '독'이란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려는 강하고 독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독'을 풀기로 작정하는 이유는, 자기를 둘러싼 현실 상황이 마치 이리나 승냥이처럼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노릴 정도로 극악(極惡)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不義)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한 뒤, 보다 치열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는 '원수'라는 말로 상징되는 불의(不義)한 현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설사 자신이 그러한 시대 현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태양만을 가슴에 굳게 간직한 채로 살아가면 어떤 회한도 남지 않으리라고 비장하게 의지를 다지는 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다) 세 작품 모두 자기를 둘러싼 시대 환경에 맞서려는 대결 의지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만 해당하는 진술입니다.

② (가)에서만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14. ①

'내적 의미만 주목한다'는 것은, 작품을 작가나 시대 상황, 독자 등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작품 자체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에서는 시어를 시 자체의 이미지나 시의 어조와 연결시켜 감상한 것이므로 내적 의미만 주목한 감상이 됩니다.

[오답 피하기]

② 이것은 시를 작품으로 해석하기 이전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를 시로서 이해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 감상 이전 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설사 시 감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시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작품 외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어 작품을 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이것은 독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를 준거로 시를 감상한 것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④ 이것은 시를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시킨 것이므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시를 시인이나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과 '표현론적 관점'이 혼재된 감상입니다.

15. ⑤

어둠 속에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창 밖 풍경을 바라보던 시인은, 이러한 외부 풍경을 자신이 처한 암울한 시대 현실과 연관시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린 화자는, 자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좁고 폐쇄된 방 안의 모습에서조차 '남의 나라'에 종속된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픈 인식은 곧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내면 성찰로 이어집니다. 한동안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를 응시하던 화자의 눈은 다시 방 안의 풍경과 창 밖의 풍경이라는 외부 상황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는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시선이 다시 외부 상황을 향하는 장면에서 시적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념과 새로운 삶에 의지를 다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느껴지는 곳이 바로 8연입니다. 1연과 8연은 동일한 시구를 사용하면서도 시행의 순서를 바꾸어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자신의 내면이 달라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6. ⑤

<보기>의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은, 시적 화자와 시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시를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나)의 시인인 율동주에게 있어 '시를 쓰는 행위'는 불의(不義)한 시대 현실에 대응하는 행위이며, 참되고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시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를 좀더 치열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좀더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기>에 나와 있는, '시란 자기를 고백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인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치열하지 못한 현실 대응의 삶'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조차 치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오답 피하기]

④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율동주에게 있어 시를 쓰는 일이란 자신을 반성하는 작업이자 불의한 시대에 맞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를 '언어 유희에 불과한 미적 세계'라고 언급하고 있는 ④번 답지는 ①의 의미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17. ②

(다)에서 '태양'이나 '일월'은 화자가 갈망하고 지향하는 대상, '의롭고 참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 두 번째 행은, '그 의롭고 참된 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열망과 지향이 눈동자에 깊이 박혀 있을 정도로 굳센'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행을 '허무함'과 '원망'의 태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잘못입니다.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㉔

[2003.10 교육청 고3]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황부장 : (대본을 보다가) 그런데..... 여기 너무 어렵지 않아?  
 김다운 : 그렇지 않은데요. 단순히 윤동주와 친구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황부장 : 내 말은, 이렇게 해선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야. 이렇게 무덤덤해서 어디 보겠어?  
 김다운 : 그래도 없는 애길 만들어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녜요?  
 황부장 : 정리해.  
 김다운 : 예?  
 황부장 : 친구들도 송몽규 하나만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말야. 윤동주와 송몽규 둘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적당히 상상력을 발휘하라우. 이래 가지곤 아무도 안 봐. 3초야. 3초. 3초 동안 시선을 잡지 않으면 리모콘이 팡팡 돌아가는 거 알지?  
 김다운 : 그래도 시인 윤동주 프로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황부장 : 다르긴 뭐가 달라? 파는 건 다 마찬가지로야. 서태지든 윤동주든. 방송의 요체는 그거야. 김작가도 앞으로 방송 생활 계속 하려면 명심해 두라구.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여기. 이 부분 좀 재밌게 ㉑바꿔. 알았어?  
 김다운 : 부장님 그건 좀.....  
 황부장 : 뭐가? (황부장, 짜증난다는 듯 김다운을 바라본다. 김다운, 황부장을 뻔히 쳐다본다)  
 황부장 : 못 바꾸겠다는 거야?  
 김다운 : 예.  
 황부장 : 예? 지금 예라고 그랬어?  
 김다운 : 순수 드라마도 아니잖습니까? 다큐드라마라면 어느 정도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황부장 : 뭐가 마음대로야? 있는 사실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자는 거 뿐인데. 혹시 김작가, 내가 교양 프로만 하던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냐?  
 김다운 : 아닙니다.  
 황부장 : 김작가, 아니, 바로 말하지. 김다운씨, 김다운씨가 작가 출신 피디라고 조연출로 붙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대구. 아마 국장 뺨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걸 어디까지 내 프로야.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마. 난 그런 거 못 바꿔. 알았어?  
 김다운 : .....  
 황부장 : 바꿔. 내일까지. (황부장, 나간다. 김다운, 대본을 구겨준다. 그대로 서 있을 때 어디선가 서서히 아이들 동요 소리.)

(나)  
 사이프 : 너희들 말이 맞다.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놈에게 황국 정신이 뺏속까지 들어가도록 우리 후꾸오까 감옥의 매운 맛 좀 보여줘라.  
 간수들 : 예. (간수들, 윤동주를 바로 세운다.)  
 간수1 : 물에 젖은 몽둥이로 뼈마디를 녹이고. (간수들 중 두 명이 물이 흐르는 몽둥이를 들고 번갈아 윤동주를 내리친다. 그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윤동주. 이에 간수 중 한 명이 수건으로 윤동주의 입을 막는다. 계속 몽둥이가 춤을 춘다. 자지러지는 윤동주.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간간이 신음 소리만. 이때 어디선가 나즈막히 허밍.)  
 간수2 : 칭칭 감는 채찍으로 살점을 때어내고. (간수들 중 다른 두 명

이 채찍을 휘두른다. 고통에 겨워 몸을 비트는 윤동주.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나즈막한 노랫소리가 점점 커진다.)  
 간수1 : 매운 고추물로 내장이 뒤틀어지도록. (간수들 중 또 다른 두 명이 윤동주를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물을 붓는다. 몸을 비트는 윤동주. 물이 사방으로 튈다. 나즈막한 노랫소리가 점점 비통한 목소리로 커지기 시작한다.)  
 간수2 : 손톱 발톱 뽑아내어 신경 끝까지 고통이 배도록. (간수2, 기구를 들고 윤동주의 손톱과 발톱을 뽑는다. 몸을 부르르 떠는 윤동주. 무대가 핏빛으로 물든다. 허밍이 비통한 노래로 바뀐다.)

(간수들, 윤동주를 바닥에 내던진다. 윤동주, 기절할 듯 움직이지 않는다. 합창소리 끝날 즈음 김다운 등장한다. 김다운,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엿드려 신음하고 있는 윤동주를 바라본다. 황부장, 김다운의 옆으로 다가온다.)  
 황부장 : 김작가, 수고했어. 김작가는 확실히 재능이 있어.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알아듣거든. 사이프라는 가공의 인물을 생각해낸 거 아주 멋진 아이디어야. 그 바람에 윤동주의 육중 장면이 살았대구. 아주 극적이고 말야.  
 김다운 : .....  
 황부장 : (슬며시 김다운의 어깨를 짚으며) 김작가 언제 입사했지?  
 김다운 : .....  
 황부장 : 이제 조연출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  
 김다운 : .....  
 황부장 : 다음 프로 개편 때 내가 적극 추천할게.  
 김다운 : 고맙습니다.  
 황부장 : 고맙긴.....

- 최현목, 「윤동주」 -

48. (가)에 나타난 '황부장'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②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억누르고 있다.
- ③ 상대방을 무시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을 내심 이해하면서도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⑤ 경험을 내세워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변하고 있다.

49. <보기>의 화자가 (나)의 '김다은'에게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最初)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에서 -

- ①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십시오. 한 인간의 고뇌를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 ②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 ③ 조금하계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쉽게 사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려움을 견디면서 신념을 지키는 일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 ⑤ 작가란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언어를 다듬으며 사는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려 하지 말고 당신의 의지를 작품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50. ㉠에 내포된 의도와 가장 관계 깊은 말은?

- ① 모방(模倣)
- ② 윤색(潤色)
- ③ 절충(折衷)
- ④ 천착(穿鑿)
- ⑤ 호도(糊塗)

##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

48. ㉠, 49. ㉠, 50. ㉠, 51. ㉠

48. ㉠

(가)에서 황부장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강변하고 있을 뿐, 내심으로나마 김다은을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49. ㉠

<보기>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창작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와는 달리 (나)에서 '김다은'은 황부장의 생각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김다은'이 황부장으로 상징되는 현실에 타협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들려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오답피하기]

㉡ (나)에서 김다은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0. ㉠

'윤색'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뀌'의 의미는 시청자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도록 '사실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자는 것이므로, '윤색'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오답피하기]

㉡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㉓

[2007.03 교육청 고2]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㉑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澣)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㉒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나)

심지를 ㉓조금 내려야겠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만큼의 빛이 있는데  
심지만 뽑아 올려 등잔불 더 밝히려 하다  
그을음만 내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㉔잠깐 더 태우며 빛을 낸들 무엇하라.  
욕심으로 타는 연기에 눈 제대로 뜯 수 없는데  
결국은 심지만 못 쓰게 되고 마는데

들기름 콩기름 더 많이 넣지 않아서  
방안 하나 겨우 비추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등잔이 이 정도 담으면  
넉넉하기 때문이다.  
넘치면 나를 태우고  
소나무 등잔대 쓰러뜨리고  
창호지와 문설주 불사르기 때문이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은은히 밝은

내 마음의 등잔이여.

분에 넘치지 않으면 범구경 한 권

㉕거뜰히 읽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빛이여.

- 도종환, 「등잔」 -

(다)

잇음 많아 이 책 저 책 뽑아 놓고서

苦忘亂抽

書

흩어진 길 도로 다 정리하자니

散漫還復整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曜靈忽西頽

강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江光搖林影

막대 짚고 뜨락으로 내려가서

扶筇下中庭

고개 들고 구름재를 바라다보니

橋首望雲嶺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漠漠炊烟生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蕭蕭原野冷

농삿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田家近秋穫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도네.

喜色動臼井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鴉還天機熟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칠해.

鷺立風標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지

我生獨何爲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宿願久相梗

이 회포를 누에게 얘기할거나

無人語此懷

거문고만 등등 탄다, 고요한 밤에.

搖琴彈夜靜

- 이황, 「만보(晩步)」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삶에 대한 성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고통을 노래하던 윤동주는 1941년 릿교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하지만 군국주의 성향이 강한 학교의 분위기를 못 이겨 한 학기만에 도시사 대학으로 편입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 하던 윤동주는, 요시찰인으로 주목을 받던 연희 전문학교 동창 송몽규와 함께 독립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일경에 체포된다. 그는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짧은 삶을 마감한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는 시인이 유학 생활 중 느꼈던 답답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배어 있다.
- ②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은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노래한 것이다.
- ③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는 공부를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국을 떠나 있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깔려 있다.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던 시인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조국의 광복을 말한다.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소

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형상화한 것이다.

15. (나)의 주제를 반영하여 시조를 창작해 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보기>의 조건에 따를 때, 중장과 종장에 배열할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지나친 욕심은 많은 것을 잃게 하고

.....

.....

※ 조건: 비유의 기법을 사용하되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도록 할 것

[중장] ㉠ 재물과 명예는 뜬구름만 잡게 하네.  
㉡ 자족하는 마음은 소박한 열매 맺네.  
㉢ 베푸는 마음은 더없이 아름답네.

[종장] ㉣ 이제는 이 마음 지켜 넉넉히 살겠노라.  
㉤ 오희라 사람 한 평생 이렇게 흘러간다.  
㉦ 언제나 이웃을 위해 사랑의 꽃 피우리.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6. (다)의 시상 전개와 특징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음과 끝이 상응하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③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⑤ 영탄과 회상의 어조를 교차해 가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에 담긴 시인의 의도를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② ㉡ : 창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나태함을 표현했다.  
③ ㉢ :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④ ㉣ :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부각했다.  
⑤ ㉥ : 욕심을 낮추어 이를 수 있는 경지에서 오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㉓

13. ①, 14. ②, 15. ③, 16. ③, 17. ②

13. ①

(가)의 화자는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성찰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② (다)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③ (나)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④ (가)~(다) 중에 해당되는 작품이 없습니다.

⑤ (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와 (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②

(가)의 시인은 <보기>에 주어진 바와 같이 일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는 식민지 조국을 떠나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자괴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며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를 극복하고 있지만, ②와 같이 자신이 시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억누르는 상황이라고 느꼈거나 그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②의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독립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15. ③

(나)의 주제는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지은 시조는 ③과 같은 시행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③의 조합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했으며, '열매'라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고, '이 마음 지켜 넉넉히 살겠노라'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에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맞습니다.

16. ③

(다)에서는 가을걷이가 가까워져 무르익은 들녘,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방앗간이며 우물터에서는 가득한 수확의 기쁨 등 모든 것이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 자신은 오로지 이룬 것이 없습니다. 책을 뽑아 놓고 흠어진 걸 정리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내면이 외부 상황의 풍요로움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17. ②

(가)의 화자가 '시가 쉽게 씌어진다고' 느낀 것은 암울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시인으로서 안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나태함이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며 자신을 반성하는 심리가 내포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④

[2012.11 교육청 고1]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⑦ 창 밖에 밤비가 속삭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⑧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⑨ ▶▶▶ ▶▶▶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⑩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⑪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⑫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삭거려는데,

⑬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⑭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나)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A]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라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들이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이성부, 「산길에서」 -

(다)

개심대(開心臺) 다시 올라 중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봉(萬二千峯)을 분명히 헤어 보니  
봉(峰)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⑮ 저 기운 흘러 내어 인걸(人傑)을 만들고저,  
형용(形容)도 끝이 없고 체세(體勢)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天地)를 만드실 때 자연히 되었건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하구나.

비로봉(毗盧峰) 맨 꼭대기 올라 본 이 그 뉘신고.  
⑯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 것이 높던고.

[B] 노(魯)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天下)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어와 저 경지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할까.  
원통(圓通)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獅子峰)을 찾아가니,

⑰ 그 앞에 너럭바위 화룡(化龍)소가 되었어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晝夜)에 흘러 내어 창해(滄海)에 이었으니,  
풍운(風雲)을 언제 얻어 삼일우(三日雨)를 내리려는가.

⑱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어라.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1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③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다짐이 드러나 있다.
- ④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슬픈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은 ㉣에서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에서의 현실 인식은 ㉣에 나타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에서 화자는 ㉣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함축되어 있다.
- ② ㉡에는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담겨 있다.
- ③ ㉠은 화자의 체념을, ㉡은 화자의 연민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에게 자책감을, ㉡은 화자에게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 ⑤ ㉠과 ㉡에는 모두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비극성이 드러나 있다.

19. [A]와 [B]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비교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산길에서」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현실에서 고통 받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역사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이 길’은 화자보다 앞선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만들어진 길로 민중의 역사로 볼 수 있겠군.
- ② ‘바람’과 ‘풀꽃’은 화자의 애정이 깃든 대상으로, 화자를 ‘가슴 벅차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③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화자는 그들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군.
- ④ ‘부질없는 퇴풀이’는 힘없는 자들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꺾일 수 있다는 염려가 담겨 있군.
- ⑤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는, ‘길’을 걷는 화자도 민중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역사 의식과 관련이 있군.

21. (다)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관동별곡」은 작가가 기행하면서 자연 경물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의식을 자연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가)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유학생이라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적 다짐을, (나)는 등산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내적 다짐을, (다)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정(善政)을 베풀겠다는 내적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 (가)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 ㉡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 (다)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 (나), (다)와 무관합니다.
- ㉤ (가), (다)와 관련이 없습니다.

17. ㉡

‘시인’이란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현실적 힘을 지니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를 화자는 ‘슬픈 천명(天命)’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줄 시를 적어’ 보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답피하기]

- ㉠ ‘밤’이라는 시간과 ‘남의 나라’라는 공간을 통해 화자의 현실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 ㉢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낡은 지식을 가르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가는 등의 삶에 대한 성찰이 ㉡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에서의 현실인식 후 ㉡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

㉠은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은 ‘말고 싶어’, ‘신명나지 않았더니’라는 서술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화자를 신명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 부모님은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 ㉡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 ㉢ 체념이나 연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비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19. ㉠

[A]는 ‘신명나지 않았더니’, [B]는 ‘뉘신고’, ‘뉘던고’ 등의 의문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 ㉢ [B]에만 쓰였습니다.
- ㉣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 [A]에만 쓰였습니다.

20. ㉣

화자는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길이 되고 역사가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없는 자들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현실의 고통으로 꺾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 ‘이 길’은 화자가 걷고 있는 산길을 뜻하면서 민중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 ㉡ ‘바람’과 ‘꽃’은 화자보다 먼저 길을 걸어난 사람들로 화자의 가슴을 벅차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애정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나는 안대’를 세 번 반복하면서 화자는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화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발걸음도 뒤에 올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역사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

㉠은 금강산의 맑은 기운을 흠뻑내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는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는 공자(孔子)의 고사와 관련된 표현이고, ㉣는 금강산 계곡의 연못에 대한 표현입니다.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⑤

[2013.11 교육청 고시]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육첩방 : 일본식 돛자리인 다다미 여섯 장을 깔 방.

(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땀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역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때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후포\*에서」 -

\* 후포 : 울진 아래 있는 작은 항구.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나는 시행을 반복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군.
- ②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군.
- ③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군.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날’은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때를 의미한다.
- ② ‘티끌’은 화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의미한다.
- ③ ‘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 ④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다.
- ⑤ ‘채찍질’은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 11.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⑤

31. ④, 32. ②, 33. ②

31. ④

(가)의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돌'은 화자가 부끄러워 버리고 싶은 '옹졸한 모습',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으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너그럽게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가), (나) 모두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어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② (나)에서는 명사로 끝나는 시행을 찾을 수 없습니다.
- ③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⑤ (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 ②

'홀로 침전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답피하기]

- ①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육척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③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에서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 ④ 화자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가 화해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 ②

'티끌'은 남의 잘못이 아주 작았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시어입니다.

[오답피하기]

- ① '날'은 친구의 작은 잘못을 크게 여겨 원수보다 더 미워하게 된 날이므로 부끄러운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날을 의미합니다.
- ③ '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 ④ 화자는 넓은 '동해바다'를 보면서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고자 하므로 '동해바다'는 화자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채찍질'은 화자의 자신에 대한 엄격한 삶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12. 최두석, 「성에꽃」 ①

[2014 예비평가 B형 고3]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C]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를 바른 이가 지שמ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  
 다.

[D]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E]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옷을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E]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지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흉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42. '성애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애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성애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 ③ '성애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④ '성애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 ⑤ '성애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 12. 최두석, 「성에꽃」 ①

40. ②, 41. ⑤, 42. ②

40. ②

(가)는 계절적 배경인 '봄'을 통해 봄을 맞이한 생명력 넘치는 국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런 '봄'조차 빼앗길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절적 배경으로 '겨울'을 통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런 상황 속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서민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계절적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의식의 연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가)의 '슬픈 웃음, 슬픔 울음', (나)의 '차가운 아름다움'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③ (가)의 공간적 배경은 '들', (나)의 공간적 배경은 '시내버스 안'으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④ (나)에는 '성에꽃', '아름다움'등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행들의 끝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이런 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 ⑤ (가)에는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아씨같이', '삼단 같이', '젓가슴 같은' 등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였으나, (나)에는 '전람회에 온 듯'에 직유적 표현이 한 번만 쓰였습니다.

41. ⑤

이 작품을 <보기>를 바탕으로 민중의 생활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A]에는 민중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에 희망이 올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이 나타나 있고, [E]에는 절망적인 민중의 현실에 대한 재확인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B]~[D]에는 민중의 생명력과 노동을 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 그럼에도 노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B]~[D]에는 비참한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은 노동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표현한 시구입니다.
- ② ㉡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고, ㉢은 직접 노동에 참여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는 시어입니다.
- ③ [B]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싶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D]에서는 화자는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으로 인해 자조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C]에서 화자가 들관에서의 체험을 통해 민중의 실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 ④ ㉣은 화자가 지향하려는 이상적 공간이고, ㉤은 자연이 주는 기쁨과 현실이 주는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시구입니다.

42. ②

심미적 태도란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아름다운 차원에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화자는 새벽 시내버스에 탄 서민들이 피어낸 것으로, 화자는 성에꽃이 서민들이 공동으로 어울려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인식합니다.

[오답피하기]

- ① 화자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성에꽃'이지, 새벽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 ③ '성에꽃'이 아름다운 것은 광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흔적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은밀하게 피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 ④ 화자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 ⑤ 화자가 친구를 회상한 것은 친구가 성에꽃을 만드는 사람처럼 살았음에도 지금은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12. 최두석, 「성에꽃」 ㉔

[2005.10 교육청 고3]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뻗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목(裸木)」 -

(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열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유사 어구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29.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후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관념적인 고민과 무기력 속에서 동경 유학 생활을 하던 대학생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향길에 오른다. 형사의 감시를 받으며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보게 되고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부산에 도착한 이인화는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역 주변에서 궁핍한 삶에 허덕이는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 아직도 허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일본인들의 경제적 침략의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조선인들의 인간적 품위를 잃은 비굴함과 허례 의식에 대해 혐오와 환멸을 느낀다. 결국 아내를 죽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는 서둘러 동경으로 돌아간다.

- ① (가)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의 여정이 나타나 있어.
- ② 그리고 그 여정은 결과적으로 탐색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어야.
- ③ 또한 (가)와 <보기>의 여정에는 모두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어.
- ④ 하지만 (가)는 화자의 내면 인식에, <보기>는 인물의 현실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⑤ 그 차이는 (가)에 설정된 화자와 <보기>에 설정된 인물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30. (나)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 ① 하은 : 나목에 공감하는 존재로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지선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깊은 울음'을 우는 나목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표현으로 화자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강희 : 나목의 모습에서 이상 실현이 좌절된 자의 모습을 유추하고 이를 동정하는 존재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좌절된 이상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표현하고 있어.
- ④ 경수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존재로, 나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엿본 화자라 할 수 있어.
- ⑤ 제호 :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나목과 혼자서 '우는 사람'의 모

습을 대비시켜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31. a~c 중, ㉠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2. ㉠과 유사한 발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1점]

- ①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가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②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③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랗 부  
르며 /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랗 부르며 /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  
람이 되었네
- ④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  
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 ⑤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  
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 12. 최두석, 「성에꽃」 ㉔

28. ①, 29. ③, 30. ④, 31. ④, 32. ①

28. ①

㉔를 보면, 화자가 자신의 여정에서 만난 나무들을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무라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표현이며, 마지막 연, 나무의 모습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고독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㉔를 보면, 화자는 나무를 ‘그들’이라고 지칭하며 ‘부둥켜안고’ ‘깊은 울음을 터뜨린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무-나무-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 ③

(가)에서는 서울에서 다시 서울로, <보기>에서는 주인공인 ‘이인화’가 동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의 경우 마지막 부분의 ‘서울로 돌아오자’라는 구절에서 화자의 여정의 출발점이 서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그러한 여정에서 만난 나무의 모습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게 되며(‘놀랍게도 그들은 ~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와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주인공은 조선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시 조선의 현실 인식하게 됩니다. 여정의 시작에서 의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정을 통해 무언가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와 <보기> 모두 결과적으로는 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의 화자가 내면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은 화자의 탐색의 초점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화자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기본적으로 ‘늙은 나무’에 주목하며, 여정에서 접하게 되는 ‘늙은 나무’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로 미루어 (가)의 화자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존재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외부 현실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반면 <보기>의 이인화의 탐색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외부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이인화가 식민지 조선의 유학생이라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러나 (가)와 <보기> 모두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0. ④

㉔에서 그러지는 나무는 현실의 고달픔은 부끄러울 것도 없어 알몸으로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도 때로는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어떤 외부적 시련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내면의 슬픔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나무과 ‘멀리서 같이’ 운다는 것은 나무과 유사한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나무처럼 내면의 슬픔을 지닌, 즉 나무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④

‘㉔고달픈 삶’은 나무의 터진 살갓에 새겨진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㉔의 입김은 성에꽃을 피워낸 사람들에게 대한 시적 화자의 애정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㉔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32. ①

㉔은 외부의 시련과 대비되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 속성이 강화되는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㉔을 보면 ‘햇살 따가워질수록’이라는 외부의 시련 속에서도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기는 ‘벼’의 긍정적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12. 최두석, 「성에꽃」 ㉓

[2008.10 교육청 고3]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II」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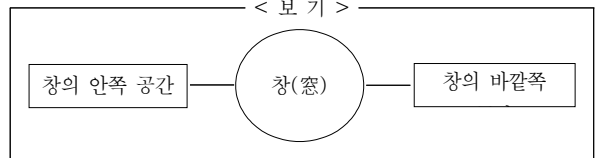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뎡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 -

13. (가)~(다)를 <보기>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의 안쪽 공간에 있다.
- ②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 (다)와 달리,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창은 (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 ④ (나)의 화자는 (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⑤ (가), (나)의 창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빗갓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 ①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성에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에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1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예찬적인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2. 최두석, 「성에꽃」 ㉓

13. ㉑, 14. ㉕, 15. ㉔, 16. ㉔

13. ㉑

(가)의 화자는 창 안에서 창밖의 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시내 버스를 타고 있는데, 창 안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의 화자는 유리창담이로 고층 빌딩의 창밖에서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화자는 창의 안쪽 공간에, (다)의 화자는 창의 바깥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 ㉕

(가)에서는 '사람은 맨날 변해 썩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는 '업동 혹은 일수록 / 선연히 피어나는 성에꽃'과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차가움의 이미지와 따뜻함의 이미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15. ㉔

(나)에서 화자는 성에꽃을 보면서 서민들과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데, 작품의 마지막 두 행을 보면 (나)에는 암울한 시대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사람도 성에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16. ㉔

(다)의 화자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으며 창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2. 최두석, 「성에꽃」 ④

[2015.06 교육청 고2]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혹은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B]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린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C]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D]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E]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가랴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텐**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2.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계절적 배경과 관련지어 차창에 핀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진 성에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 ③ [C] : 서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있다.
- ④ [D] :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성에꽃을 지우는 태도를 통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오랫동안 함께 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첫사랑인 눈꽃을 피워 내고,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 피부어 준 다음에야’는 나뭇가지에 대한 눈의 헌신적 태도로 볼 수 있다.
- ③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봄꽃의 기쁨으로 볼 수 있다.
- ④ ‘한 번 텐 자리’는 눈이 녹은 자리이자 봄꽃이 피는 자리라는 점에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름다운 상처’는 끝없는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인 봄꽃으로 볼 수 있다.



## 12. 최두석, 「성에꽃」 ④

31. ①, 32. ④, 33. ③

31. ①

(가)에서는 '막막한 한숨이던가', '정열의 숨결이던가', '친구여' 등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황홀 보아라' 등에서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② 공감각적 심상은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③ 음성 상징어는 (나)의 '짜그락 짜그락'(의성어), '난분분 난분분'(의태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차가운 아름다움'에, (나)는 '아름다운 상처'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 ⑤ (나)에 '보아라'처럼 명령형 표현이 사용은 되었으나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정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2. ④

화자가 성에꽃을 정성스레 지우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지녔던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엄동 흑한일수록'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낸 성에꽃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 ③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며, '전담회에 온 듯' 다니며 '차가운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에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33. ③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의 노력으로 피워 낸 눈꽃이며 그 눈꽃에 대한 화자의 반응(기쁨)을 의미합니다. 화자가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답피하기]

- ①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기>의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다 피부어 준 다음에야는 <보기>에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현신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④ '한 번 댄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이며 봄꽃이 피어나는 자리이므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아름다운 상처'는 봄이 되어 가지가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워 낸 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기>의 봄이 되면 나뭇가지가 피워내는 아름다운 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㉔

[2012.04 교육청 고3]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고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짙은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 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노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들리라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벽차리  
봄이 오는 이 **솔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버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솔숲에서」 -

(다)  
내 이미 백구 있고 백구도 나를 잊네  
㉑ **돌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운을 만나 이 돌을 가려낼꼬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㉒ **가랑비** 낚시터에 낚시대 제 맛이랴  
㉓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 버리려든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㉔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㉕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  
-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  
\* 벼슬 제안을 들은 귀를 영수에 씻은 허유와 그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은 소부의 고사에서 차용한 것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③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④ 자연물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 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랑나비'와 (나)의 '박새'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② (가)의 '눈보라'와 (나)의 '찬 서리'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 ③ (가)의 '달'과 (다)의 '달'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
- ④ (나)의 '솔이파리'와 (다)의 '붉은 잎'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 ⑤ (나)의 '솔숲'과 (다)의 '강'은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야곡」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 하의 냉혹한 현실을, 향구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이끼'만 푸를 '무덤'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고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
- ② '검은 꿈'이 '슬픔'과 '자랑'을 집어삼킨다는 표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③ '매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
- ④ '숨 막힐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던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 ⑤ '강땀'을 '차디찬'으로 수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어.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리고', '지네' 등에 드러난 하강 이미지는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 ② '묵은 잎'은 화자가 지나온 삶을, '새 잎사귀'는 화자가 기대하는 삶을 함축한다.
- ③ '이 세상', '이 고요한 숲' 등에서처럼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내 마음 가장자리', '술술 끝으로'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
- ⑤ '봄산'→'봄이 오는 이 숲'→'봄이 오는 이 숲'으로 시상을 구체화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별은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옥계산에 은거하였다. 그는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정신을 지향했다. 이 시에서는 현실 세계를 혼탁한 세상으로 여긴 반면,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① ㉠ : 혼탁한 세상에서 멀어져 자연에 친화된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② ㉡ : 은일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 화자와는 달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④ ㉣ : 속세의 명리를 중시하지 않는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⑤ ㉤ : 세상의 청탁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 13.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

13. ㉡, 14. ㉠, 15. ㉡, 16. ㉡, 17. ㉡, 18. ㉡

13. ㉡

(가)에서는 '무덤 위에' 푸를 '이끼'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모습의 고향이 아닌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나)에서는 '내리는' '솔이파리들'과 지는 '상수리나무 목은 잎'을 보고 자연의 변화에 주목하며 과거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의식이 드러납니다. (다)에서는 '나를 잊'은 '백구'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14. ㉠

(나)에서는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에서'를 어순이 도치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에는 어순이 도치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가)는 처음과 끝을 반복하여 대응시킴으로써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는 처음과 끝이 서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 (가)는 '-리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으)리', '-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5. ㉡

(나)의 '숲'은 화자가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다)의 '강'은 그곳의 낚시터에서 화자가 낚시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16. ㉡

'검은 끝'은 슬픔과 자량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표현조차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망적인 화자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일체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17. ㉡

'내 마음의 가장자리'는 화자의 마음 한 구석으로 과거의 삶을 마음속에 잡아 두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으며, '숲 끝'은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는 밝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곳이므로, 이 시구들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18. ㉡

㉠은 맑고 탁함을 분별하여 혼탁한 세상에서는 버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과는 달리, 맑고 탁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 나아가 이득을 취하려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청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4. 신경림, 「고향길」

[2007.06 모평 고3]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①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수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길 떨어아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②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③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숨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납새도 कै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것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다)  
[A]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B]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④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C]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D]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E]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 [1점]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4.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 < 보 기 > -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 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5.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 < 보 기 > —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14. 신경림, 「고향길」

15. ⑤, 16. ②, 17. ②, 18. ②, 19. ④

15. ⑤

(가)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비해, (다)의 화자는 고향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한과 고생이 담긴 공간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에 등장하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나그네 되어 떠난다는 데서 고향에 정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눈 감고 회상하는 아름다운 고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③ 진주 장터와 남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④ (나)는 고향을 회상하고 있을 뿐이지만, (가)에서는 고향에 찾아가게 되면 어떨 것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6. ②

(가)의 '내 살던 집 뿔마루'는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역시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유랑하는 삶의 지향점을 뜻하고, ㉡은 어머니의 고난스러운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 ②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첫 부분의 '눈을 감는다'에서 현재 상황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마지막에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이 도로 애것하다'에서는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다)는 직접 회상하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를 (다)로 개작할 경우에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현재 상황을 부여해야 합니다.

18. ②

(나)는 현대 시조로 읍수율이나 율격 구조는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현재적인 감수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연에서 '풀밭길 - 개울물 - 초집'의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2연에서의 '진달래 - 저녁노을 - 꽃지집'의 붉은 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 3연에서의 '멧밭새 - 봄을 씹는 마을'이라는 미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에 의해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의미 구조를 배치함으로써 율격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미학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③ 글자 수 제한과 율격적 특징은 기존의 시조의 특성입니다.  
④ 사투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기보다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3장 구조는 특별히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9. ④

<보기>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과 고통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나가 밤이슬을 맞으며 돌아오시곤 했던 어머니의 고생과 자식들을 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D가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진주 장터로 생어를 장사를 하러 신세력이나 밤에 오고가고 하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상황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박두진, 「해」 ①

[2012.11 교육청 B형 고2]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뼘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휘휘**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뿜아, 사슴을 뿜아,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뿜아,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뿜아 취범을 뿜아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뵈고 고운 날**을 누리 보리라.

- 박두진, 「해」 -

(나)

고추밭을 걷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훑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같이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갇아둔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 나희덕, 「어떤 출토(出土)」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시에 등장하는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대상과 대비되는 밝음을 상징하는 해로 인하여 세상은 온갖 사물들이 신생(新生)의 빛을 받아 더욱 활기가 넘치는 세계가 된다.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활기찬 세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 ① 1연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인 '어둠'과 대비함으로써 광명한 존재인 '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군.
- ② 2연에서는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이라는 공간을 제시하여 이 둘을 매개하는 '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군.
- ③ 3연에서는 날개 치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의 의태어인 '휘휘'를 활용하여, 햇빛을 받은 '청산'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 ④ 4, 5연에서는 '사슴과 놀고'와 '취범과 놀고'라는 행위를 제시하여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⑤ 6연에서 '꽃도 새도 짐승도' 함께 '애뵈고 고운 날'을 누리자는 것에서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를 엿볼 수 있군.

4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호박'의 가치를 물질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② ㉡은 '호박'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을 덮어주는 행위는 화자가 '호박'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 ④ ㉣이 상징하는 '호박'의 강렬한 생명력은, 화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한다.
- ⑤ ㉤에는 '호박'의 희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이 나타난다.



## 18. 박두진, 「해」 ①

40. ③, 41. ②, 42. ④

40. ③

(가)는 ‘맑알게 씻은 얼굴’, ‘애원 얼굴’, ‘너가사 오면’, ‘너를 만나면’ 등을 통해 자연물인 ‘해’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등을 통해 자연물인 ‘호박’에 인격을 부여하여 희생의 숭고함이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1. ②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인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시에서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은 해가 없는 부정적인 공간들입니다. 때문에 해가 이러한 부정적인 공간들을 매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2. ④

‘불꽃’은 벌레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호박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때문에 ‘불꽃’이 ‘호박’의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와 ‘흙 속에 갇히든 지 오래다’로 보아, ‘불꽃’이 화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호박을 ‘뜻밖의 수확’이라는 획득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으로 보아, 호박을 물질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벌레들이 호박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은밀한 의식’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호박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물질적인 존재에서 희생정신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호박’의 상황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고춧대’를 덮어주는 행위를 통해 화자가 ‘호박’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호박’의 씨를, ‘둥근 사리들’이라는 고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호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박두진, 「해」 ㉓

[2003.06 교육청 고1]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먼 얼굴 고운 ㉑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꿀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월월월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애 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랴.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㉒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지금 눈 나리고  
[A]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㉓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다)

푸른 산이 ㉔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山蔘)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 소중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㉕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  
이나.

뺨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어  
나.....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다.
- ③ 갈등의 극복과 화해를 열망하고 있다.
- ④ 현재보다 나은 세계를 염원하고 있다.
- ⑤ 순수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14. (가)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령형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었다.
- ② 언어의 절제를 통해 동양적 여백의미를 드러내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었다.
- ④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켰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15.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이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파릇한 미나리 싹이 / 봄날을  
꿈꾸듯 // 새해는 참고 /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 김종길, 설날 아침에 -
- ②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 //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이.  
- 박목월, 나그네 -
- ③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 ④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발이 한참같이 // 팽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 ⑤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  
가가 허락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 윤동주, 십자가 -

16. <보기>는 상징 사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해 : 영원성, 역동성, 희망, 왕
- 강물 : 세월, 역사, 정화, 덧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욕망
- 백마 : 신성성, 왕권, 수호자, 남성
- 흰 구름 : 희망, 고고함, 무상, 정치 없는 나그네
- 푸른 산 : 신성한 곳, 지조, 이상향, 흔들리지 않는 힘

- ① ㉠ 해 : 오랜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을 상징한다.
- ② ㉡ 강물 :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한 역사와 문명을 상징한다.
- ③ ㉢ 백마 : 천고의 뒤에 초인이 타고 온다는 것으로 보아 신성성을 상징한다.
- ④ ㉣ 흰 구름 : 하늘에 덧없이 떠다니는 모습으로 보아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 ⑤ ㉤ 푸른 산 :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상징한다.

17. <보기>는 (다)를 읽은 학생이 산문으로 바꾸어 쓴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뼈에 저리도록 삶이 너무 험겨울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저물 무렵 아무도 없는 들에 나가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곤 했다. 처음엔 ② 들판의 어둡고 텅빈 모습이 내 삶과 닮은 것 같아 슬프고 외로웠지만, 보석을 박아 놓은 듯 아름다운 별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현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③ 어려운 처지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④ 하늘에 뜬 푸른 별을 앞날의 희망이라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리라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내 별을 바라보며 ⑤ 이제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라 여기게 되었다.

## 18. 박두진, 「해」 ㉠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3. ④

(가)는 어둠의 세계인 달밤을 거부하고, 광명을 상징하는 해를 통해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광막한 공간인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는 어려운 삶에 굴하지 않고, 이상을 지니고 살아가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작품은 모두 현재보다 나은 세계를 염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②

(가)에서는 ‘~하랴’는 명령형 어미의 사용, ‘해, 달밤, 청산, 사슴,’ 등의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시어들의 이미지를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훨훨훨, 이글이글, 위어이 위어이’ 등의 음성 상징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여백의 미가 구체화되어 있는 구절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15. ⑤

‘가난한 노래의 씨’는 일제하의 가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생명의 의지로, ‘씨’에 함축되어 있는 자기 희생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⑤에서 화자도 당시의 어두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절(殉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두워 가는 하늘 밑’은 암담해지는 당시의 상황을 상징한 것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희생을 통한 구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②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유유자적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대상에 대한 기다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④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6. ④

‘흰 구름’은 화자의 희망을 비유한 시어로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산’은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화자를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 ⑤

시적 화자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뼈에 저리게 힘든 삶을 이겨내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①

[2013.03 교육청 B형 고3]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B]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잦아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햇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C]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D]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흠이 되기 위하여  
흠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흠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불에 짓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完成)되는  
저 절대(絶對)의 파멸(破滅)이 있다면,

흠이 되기 위하여  
흠으로 빚어진  
모순(矛盾)의 그릇.

- 오세영, 「모순의 흠」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공간 개념인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인 1~4연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가,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① [A]에는 화자가 이별이라는 현실에 부여한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A]에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가 변주되어 나타나 있다.
- ③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를 통해 '여기'가 화자인 경우뿐 아니라 '직녀'에게도 해당하는 현실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는 [C]를 변주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된다.

- ① 화자는 '깨진다'는 대상의 속성과 '죽는다'는 '인간'의 속성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② 화자는 대상과 유사하게 '인간'도 '불에 짓고 불에 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화자가 대상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는 죽음을 잊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모순'은 화자가 깨닫게 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①

37. ④, 38. ③, 39. ④

37. ④

(가)는 1연~4연까지는 ‘~위하여서는 ~가 있어야 하네’를 반복하며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는 1연과 5연에서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벗어진다’를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8. ③

[C]에는 이별이 사랑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9. ④

이 시의 기본적인 발상은 유추에 있습니다. 그릇의 ‘깨어짐’과 인간의 ‘죽음’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그릇의 순환과정을 통해 ‘모순’으로서의 삶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2연에서 ‘생애의 영광’에 해당하는 순간에 그릇이 깨어진다고 한 것이 ‘인간은 죽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생애의 영광’을 인간이 추구할 가치로 파악한 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㉔

[2010.03 교육청 고2]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눅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반짝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복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마을의  
**노오란 초가울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편**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A]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B]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  
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 6 - 초설」 -

(다)

한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 내 꿈아.  
**만리요양(萬里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B] 풍설(風雪) 섞어 친 날에 묻노라 **북래사자(北來使者)\***야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얼마나 추우신고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제2수>

구중(九重) 달 밝은 밤에 **성려(聖慮)\*** 일정\* 많으려니  
**이역풍상(異域風霜)**에 학가(鶴駕)인들 잊을소냐.  
이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제7수>

**구령\*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 제 8 수 >

- 이정환, 「비가(悲歌)」 -

- \* 만리요양 : 만리나 떨어진 청나라 요양.
- \* 학가선용 : 신선 같은 얼굴. 학가(鶴駕).
- \* 북래사자 : 북에서 온 사자.
- \* 소해용안 : 왕세자의 얼굴.
- \* 성려 : 임금의 근심.
- \* 일정 : 정말.
- \* 억만창생 : 백성들.
- \* 구령 :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다) 모두 부정적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가), (나), (다) 모두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가)와 (나)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타난다.
- ④ (가)와 (다)는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⑤ (나)와 (다)에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14.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점]
- ① [A]의 '고향'은 심리적 공간으로, [B]의 '고국'은 현실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A]의 '고향'은 '어린 저녁 무렵'과 관련지어, [B]의 '고국'은 '풍설 섞어 친 날'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 ③ [A]의 '고향'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이미지로, [B]의 '고국'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 ④ [A]의 '붉은 눈물'에서 '붉은'과 [B]의 '눈물겨워 하노라'의 '겨워'는 정서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 ⑤ [A]의 '눈물'은 '까닭 모를'과 관련하여, [B]의 '눈물'은 '고신'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15.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끝냄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처음과 끝을 동일한 표현으로 제시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16. (가)를 <보기>와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견우성과 직녀성에 얽힌 설화 '견우와 직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녀는 옥황상제의 손녀로 목동인 견우와 혼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한 뒤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샀다. 옥황상제는 그 벌로 두 사람을 떨어져 살게 하고, 일 년에 한 번 칠월 칠석(七月七夕)에만 만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아 만날 수 없게 되자, 까마귀와 까치들이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

- ① 설화의 주인공인 견우와 직녀가 (가)에서는 각각 화자와 청자로 설정되었군.
- ② 설화에서는 까마귀와 까치의 도움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가)에서는 주체들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군.
- ③ 설화에서는 은하수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지만 (가)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심화하는 기능도 하고 있군.
- ④ 설화에서는 이별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벌이지만 (가)에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군.
- ⑤ 설화에서는 견우와 직녀 간의 갈등이 이야기의 중심이지만 (가)에서는 그 갈등의 해소가 시상의 중심이 되었군.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은 고향 마을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은 '후두둑 빗방울'과 함께 계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③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는 감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④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의 정적 이미지는 '흰웃자락'의 역동적 이미지와 대비되고 있다.
- ⑤ '그 어두운 신작로 길'은 '짜락눈'의 촉각적 이미지와 함께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다.

18.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시조이다. 병자호란 후 당시의 왕세자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 붙잡혀 갔는데, 작품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다.

- ① '만리요양'은 병자호란 이후 왕세자가 잡혀간 공간이다.
- ② '복래사자'는 왕세자의 귀환을 알리려고 온 신하이다.
- ③ '성려'는 나라와 백성들을 염려하는 임금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④ '이역풍상'은 왕세자의 고난의 삶을 뜻한다.
- ⑤ '구렁에 나 있는 풀'은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부각한다.



##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㉔

13. ㉑, 14. ㉓, 15. ㉑, 16. ㉕, 17. ㉔, 18. ㉒

13. ㉑

(가)는 일 년에 칠월 칠석 하루밖에 만날 수 없는 연인 견우와 직녀가 이별해 있는 상황을 다루며, 보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로,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은 화자의 마음속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는 병자호란이라는 수치와 아픔에 대응하여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세 시 모두에는 화자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 ㉓

[A]에서는 어린 시절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리던 저녁 무렵의 상황이 아련한 추억으로 제시되고 [B]에서는 추운 겨울날 요양에 잡혀간 왕세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감출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A], [B]의 시적 정황 속에서 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㉓에서 [A]의 '고향'은 시간('그 어린 저녁 무렵')과 공간('질버늘에 파묻혀')이 통합된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B]의 '고국'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이미지로 볼 수 없습니다.

15. ㉑

(가)에서는 '—하네'가, (나)에서는 '이제 —아니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구의 반복은 화자의 정서 및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에서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고난과 시련들이 '—하네'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고, (나)에서는 시적 화자에게 마음의 고향이 고향의 실체에는 없지만 화자의 마음속에는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발상이 '이제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16. ㉕

이 시에는 '견우—직녀 설화'가 시적 발상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설화에서는 두 사람이 별을 받아 일 년에 한 번만 만나고 은하수 등은 장애물의 역할만 합니다. 반면 시에서는 기본적인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하물, 출렁이는 물살, 바람 등 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보입니다. 또한 설화의 주인공인 견우, 직녀는 시의 화자와 청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㉕에서는 원래 설화에서 견우—직녀 간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의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시상의 중심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이별과 시련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17. ㉔

이 시에서는 고향의 모습과 화자의 심경이 계절적인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 '그 어둑한 신작로 길'은 각각 고향의 잊지 못할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㉔의 '흰옷자락 날리며'와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은 역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경을 표현한 시구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8. ㉒

이 작품은 병자호란 직후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시구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청나라로 잡혀간 왕세자에 대한 근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 임금에 대한 걱정 등이 다양한 시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북래사자'는 청나라를 다녀 온 사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 왕세자가 풀려나 귀국할 수 있음을 '북래사자'가 알리러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8. (나)의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기다리리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리리  
어느 날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될 수 있다면

- ① 화자의 심리 변화를 뚜렷이 전달하기 위해 연을 나누어야겠어.
- ② 이별의 슬픔을 부각시키기 위해 행과 어순을 바꾸어야겠어.
- ③ 음악적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일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야겠어.
- ④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추가해야겠어.
- ⑤ 시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의미가 모호한 표현을 바꾸어야겠어.

19.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심리적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이별의 고통을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승화(昇華)시키고 있다.
- ③ 화자가 직녀의 할 일을 말함으로써 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 ④ '물살, 바람' 등의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견우와 직녀가 겪을 시련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견우와 직녀'라는 설화적 소재를 이용해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㉓

15. ⑤, 16. ①, 17. ①, 18. ③, 19. ①

15. ⑤

(가)의 화자는 미래의 성숙한 사랑을 위해 낙화와 같은 이별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입과 하나의 꿈으로 이를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견우와 직녀처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이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와 (다)의 시적 화자는 현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자연의 섭리에 빚대어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 ④ 재회에 대한 희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 (다)입니다. (가)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 이별을 하는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 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결별’과 ‘축복’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표현된 내용 안에서 서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역설’이라 합니다. ① ‘어둠은 환희’라는 논리는 역설입니다. ‘어둠’과 ‘환희’가 서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② 사슴이라는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③ ‘내 마음은 낙엽, 나는 나그네 같이’ 등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④ ‘포근한, 푸른’ 등의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 ①

‘열매’는 ‘낙화’라는 자기 희생(이별)을 통해 얻어지는 ‘성숙한 만남’(결과물)을 뜻하며, 화자로 하여금 현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㉔‘비단’은 화자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승화’를 의미합니다.

[오답피하기]

- ㉔‘겨울’은 화자가 겪고 있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18. ③

<보기>에서는 (나)의 [A] 와는 달리 ‘나는 기다리리.....수 있다면’의 문장 구조를 각 연에서 반복하여 시에 일정한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보기>나 (나)의 [A] 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② ‘나는 기다리리’란 표현을 연의 앞 부분으로 옮기면 오히려 시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됩니다.
- ④ 추가된 비유적 표현이 없습니다.
- ⑤ (나)의 [A] 에서 모호한 시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9. ①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직녀여’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인 ‘견우’가 청자인 ‘직녀’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④

[2012.09 교육청 고1]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대에 “있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 나무리면 : ‘나무라면’의 함경도 방언.

(나)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 불타는 흙땀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 돌아나는 풀삭을 나는 세이고…….

허이던 허이던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牽牛)의 노래」 -

(다)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 시장에 가 계신가요  
㉢ 진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내 가는 데 ㉤ 저물까 두렵습니다

-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井邑詞)」 -

8.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음절수를 늘린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반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김소월 시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재’라는 시간 의식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여 시간은 ‘과거-미래’로 직접 연결된다.

과거    \*    현재    \*    미래

- ① 화자는 ‘먼 후일’인 미래에 비로소 과거의 ‘당신’을 잊었군.
- ② ‘그때’는 화자가 ‘당신’과 이별했던 과거의 상황을 의미하는군.
- ③ 화자는 ‘당신’과의 대결 의지를 현재인 ‘오늘’에서 드러내는군.
- ④ 화자는 ‘먼 후일’과 ‘있었노라’를 결합하여 ‘오늘’의 이별 상황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군.
- ⑤ 화자가 ‘먼 후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제’에 ‘당신’이 남긴 약속을 영원히 잊지 못해서이군.

11.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 : 만남을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④ ㉣ : 이별을 참고 견디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 : 만날 때까지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권하고 있다.

12. 반달과 달님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달과 달님은 모두 임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② 반달과 달님은 모두 화자의 슬픈 정서를 드러낸다.
- ③ 반달은 만남의 시간을, 달님은 만남의 매개자를 의미한다.
- ④ 반달은 불완전한 사랑, 달님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
- ⑤ 반달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님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정읍은 전주에 소속된 현(縣)이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내는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언덕에 망부석으로 변해 남아 있다고 한다.

- 고려사 악지, 「삼국 속악 백제조」 -

- ① ㉠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에서 남편의 직업이 상인임을 알 수 있다.
- ③ ㉢는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 ④ ㉠에는 남편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아내의 당부가 나타난다.
- ⑤ ㉢에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 의지가 드러난다.

##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

8. ㉢, 9. ㉤, 10. ㉣, 11. ㉠, 12. ㉢, 13. ㉤

8. ㉢

(가), (나), (다) 모두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9. ㉤

(가)는 '나무리면~있었노라'가, (나)는 '이별이, 이별이', '허이연 허이연', '~있어야 하네'에서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10. ㉣

화자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별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인 '먼 후일'이라는 시간을 설정하고 그 미래에도 잊지 못할 임을 반영적 표현인 '있었노라'와 결합하여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11. ㉠

㉠은 이별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12. ㉢

반달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 칠석을, 달님은 행상을 떠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매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13. ㉤

㉤는 해가 저물어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으로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21.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㉔

[2006.03 교육청 고2]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㉑과룩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㉒꽃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㉓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치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A] 험난(險難)하고 각박(刻薄)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 김종길, 「설날 아침에」 -

(나)  
홍부 부부가 ㉔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sup>1</sup>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닿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이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다)  
강호(江湖) 한 ㉕꽃을 낀 지도 오래더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여 어즈버 잊었도다  
침피기옥(瞻彼淇澳)한대\* 녹죽(綠竹)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낚싯대 하나 빌려 다오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발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㉖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내 빈천(貧賤) 슬피 여겨 손을 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다가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㉗단사포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 할 이 누 있으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겠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 구복(口腹) : 먹고 사는 것
- \* 위루(爲累) : 누가 됨. 거리낌이 됨
- \* 침피기옥(瞻彼淇澳)한대 : 저 기수(淇水)의 물가를 보건대
- \* 유비군자(有斐君子) : 빛나는 군자. 교양 있는 선비
- \* 빈이무원(貧而無怨) :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음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형적 율격의 효과가 잘 나타나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의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고전 문학에서 작품의 제재를 차용하고 있다.
- ⑤ 화자가 관찰자가 되어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16. (가)의 ㉔와 (다)의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현실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㉕는 현실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 ② ㉔는 화자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㉕는 화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 ③ ㉔는 화자에게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해 주고, ㉕는 화자에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킨다.
- ④ ㉔, ㉕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세계를 의미한다.



⑤ ㉠, ㉡ 모두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 낼 수 있는 힘을 준다.

17. (가)의 [A]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각사각 소리나는 /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 몇 번이고 지우며 / 다시 쓰는 나의 하루 //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아어 도 / 단정하고 깨끗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 이해인, 「살아 있는 날은」
- ②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 세상을 누리자  
- 김남조, 「설일(雪日)」
- ③ 가을에는 / 사랑하게 하소서..... /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 김현승, 「가을의 기도」
- ④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 고요한 눈 쌓이는 소리, / 세상은 지금 기도(祈禱)의 끝이노라 /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 설레이는 평화(平和)로서 덮이노라  
- 고은, 「속(續) 눈길」
- 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1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과 '황금 비이삭'은 흥부 부부가 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②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에서 '문제'는 '물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 ③ '손발 닳은 처지'는 흥부 부부가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거울면(面)'은 흥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⑤ '본(本)웃음'은 '박덩이를 사이 하고' 흥부 부부가 지을 수 있었던 본디의 순수한 웃음을 의미한다.

19. 다음은 (다)를 바탕으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기획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획 의도	빈이무원(貧而無怨)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어 조선 시대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	---

	계획	기대하는 효과	
배경	풍광이 아름다운 농촌으로 설정하자.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①
등장 인물	궁핍한 상황을 넘겨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선비로 설정하자.	호구지책(糊口之策)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②
보여 주고자 하는 장면들	넓지 않은 논과 밭에서 화자가 몸소 농사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 장면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전원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③
	화자가 석양을 배경으로 강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장면	청풍명월(淸風明月)과 벗이 되어 지내고 싶은 화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④
	화자가 어렵게 끼니를 때우면서도 충효, 우애 등을 실천하며 지내는 장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화자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⑤

20. ㉠~㉣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㉔

15. ㉓, 16. ㉕, 17. ㉒, 18. ㉑, 19. ㉓, 20. ㉑

15. ㉓

(가)~(다)는 모두 화자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이라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홍부 부부의 태도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 화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정도의 빈궁한 처지에서 자연과 물아일체가 되어 지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생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들입니다.

16. ㉕

㉔의 '꿈'은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을 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이며, ㉕의 '꿈'은 화자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던, 하지만 경제적인 궁핍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㉒

[A]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태도는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인식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㉒에도 세상의 모든 불평등에 대해 타인만을 탓하던 모습에서 조용히 내면을 살펴보며 좀더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너그럽게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내적 다짐과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화자의 긍정적·낙천적 삶의 자세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오답피하기]

- ㉑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㉓ 간절한 기원의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갈망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㉕ 현실에서 느끼는 분노와 고통을 시인은 흐르는 물을 보며 씻어 버리며 삶을 반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 ㉑

'금'과 '황금 벼이삭'은 가난한 생활을 상징하는 '박덩이'와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홍부 부부가 갖지 못한 재물 즉 경제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 시에서 홍부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에 '금'과 '황금 벼이삭'은 홍부 부부의 사랑이나 신뢰와 대비되는 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㉓

(다)에서 화자는 전원에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급자족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 ㉑

㉑의 '파릇한 미나리 싹'은 겨울이라는 고단한 현실과 대비되는 새봄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반면 ㉒~㉔은 모두 가난한 생활을 의미하는 '소박한 음식'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1.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㉓

[2008.06 교육청 고1]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땃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A]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길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㉑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 -

(나)

홍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㉒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땃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㉓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

(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뵈를 바라보니  
㉔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너도 못내 좋아하노라

누고서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낙뚝더라  
아마도 임천한홍을 비길 곳이 없으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사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㉕다만당 다투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으라

- 윤선도, 「만흥(漫興)」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에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좌절감을 다른 대상에 의탁 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화자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을 뒤바꿔 놓아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 ② 경건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심상을 통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고전 소설의 내용을 끌어들이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15.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억센 파도'와 '맵고 모진 매'는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군.
- ② ㉒ : '문제다'란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해.
- ③ ㉓ : 앞 구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구슬'이 의미하는 것은 눈물이야.
- ④ ㉔ : 기다리던 임이 돌아와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어.
- ⑤ ㉕ : 세속적 이익을 놓고 다투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16. 시적 화자의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②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두 쪽으로 깨뜨려져도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바위」 -
- ③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온몸으로 가자.허공 뚫고온몸으로 가자.  
- 고은, 「화살」 -
- ④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애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 김광균, 「은수저」 -
- 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

17. (나)의 '거울면(面)'과 <보기>의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이상, 「거울」 -

	(나)의 '거울면(面)'	<보기>의 '거울'
①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
②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
③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긍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④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⑤	모두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18. (다)의 시구 중,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보 기 >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창작한 작품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임금과의 관계가 작품의 근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선도의 작품 또한 예외가 아닌데, 그의 한시 및 국문 시가를 살펴보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품들은 물론이고 귀거래(歸去來) 내지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조차도 대부분 연군지정(戀君之情)의 바탕 위에서 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 ②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
- ③ 아마도 임천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
- ④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 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21.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㉓

13. ㉓, 14. ㉕, 15. ㉔, 16. ㉑, 17. ㉑, 18. ㉕

13. ㉓

(나)의 화자는 '황금 버이삭'보다 '웃음의 물살'을, (다)의 화자는 '삼공', '만승'보다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㉓입니다.

14. ㉕

(가)는 '바다'와 '돌', (나)는 '황금 버이삭'과 '웃음의 물살'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㉕입니다.

15. ㉔

㉔은 '그리워하던 입이 온다고 해도 반가운 마음이 이만(자연을 즐기는 것만) 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㉔입니다.

16. ㉑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㉑입니다.

17. ㉑

(나)에서 홍부 부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거울 속의 '나'와 소통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㉑입니다.

18. ㉕

㉕에는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㉕입니다.

24. 이용악, 「그리움」 ㉔

[2014.09 교육청 B형 고2]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B]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C]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D]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E]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립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나)

산그늘 내린 발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던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좌아좌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좌아좌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없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에서 ‘눈’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차가움의 이미지와는 달리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 ①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함박눈’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 ② [B]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부각하였군.
- ③ [B]에서 ‘너’가 있는 ‘작은 마을’의 ‘복된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군.
- ④ [C]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곳에서 ‘잠’을 깬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겠군.
- ⑤ [D]에서 ‘함박눈’이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하여 고향과 그리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군.

40. 다음을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벌레 한 마리도 밟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를 따라 참깨 터는 것을 도와드렸던 어느 날이었다. ①날이 저물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나는 조금힘에 막대기로 힘껏 참깨를 털었다. 그때 ②쏟아지는 알맹이들을 보면서 뜻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③참깨를 털어내듯이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신나게 참깨를 털 때 할머니께서는 참깨의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안 된다며 타이르셨다. ④할머니께서는 참깨를 털 때 슬슬 막대기질을 하셨다. 이는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지혜였다. 할머니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중한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10년 가까이 도시에 살면서 ⑤무엇인가를 조금하듯 많이 얻으려는 도시적 삶에 익숙해 가는 나에게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모습은 소중한 ‘꾸중’이 되었다.

## 24. 이용악, 「그리움」 ㉔

38. ⑤, 39. ②, 40. ③

38. ⑤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습니다. (가)에서는 ‘백무선 철길’이 구부러진 모양을 ‘굽이굽이’로, ‘화물차’가 느리게 달리는 모양을 ‘느릿느릿’으로, (나)에서는 ‘할머니’가 참깨를 터는 모습을 ‘슬슬’로, 참깨 알맹이가 쏟아지는 소리를 ‘샤아샤아’로 표현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9. ②

(가)는 포근하고 아늑한 ‘눈’의 이미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상상을 통해 고향 마을로 가는 길에 보게 되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눈’과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지만,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겹고 고달픈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 검은 지붕에도 복된 눈이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0. ③

제시문에는 화자가 시를 쓰기 전에 작성한 가상의 수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깨를 터는 경험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시입니다. (나)의 12~14행에서는 참깨를 털면서 느끼는 쾌감을 인간사에서도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 받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시문의 내용처럼 조금하듯 많은 것을 얻으려는 도시적 삶에 익숙한 나는 할머니의 꾸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순리대로 사는 삶,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24. 이용악, 「그리움」 ㉓

[2009.11 교육청 고1]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A]

험한 벼랑을 굽굽이 돌아간  
백무선(白茂線)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나)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해바라기 밭 해바라기들 **새에 서서**  
나도 해바라기가 되려오.

[B]

황금(黃金) 사자(獅子) 나뭇  
오만(傲慢)한 왕후(王侯)의 몸매로  
**진종일 짝소리 없이**  
삼복(三伏)의 염천(炎天)을 **노리고 서서**

눈부시어 요요히 **호접(胡蝶)**도 못오는 **백주(白晝)**!  
한 점 회의(懷疑)도 감상(感傷)도 용납치 않는  
그 불령(不逞)스런\* 의지의 바다의 한 분신(分身)이 되려오.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해바라기 밭으로 가서  
해바라기가 되어 섰으려오.

- 유치환,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

\* 불령스런 :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다)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엮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 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싧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져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더라도  
츄닝쿨처럼 머루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거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 신경림, 「산에 대하여」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친숙한 소재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대조하여 대상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의 반복으로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14.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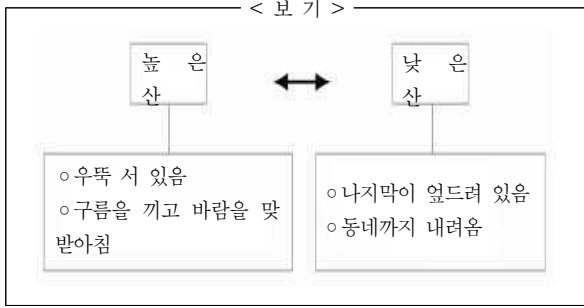
- ① [A]는 동적 심상이, [B]는 정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 ② [A]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나, [B]의 공간은 현실의 공간이다.
- ③ [A]는 과거를 회상하며, [B]는 미래를 전망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A]는 구체적 대상을 추상화하였고, [B]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 ⑤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5. (나), (다)의 시어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새에 서서'와는 달리 (다)의 '구경하고 섰다'에는 단절감이 드러나 있군.
- ② (나)의 '진종일 짝소리 없이'에는 (다)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와 달리 의연한 태도가 드러나 있군.
- ③ (나)의 '노리고 서서'에는 상황에 대한 대결 의지가, (다)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에는 대상에 대한 포용적 자세가 투영되어 있군.
- ④ (다)의 '휘파람새'는 (나)의 '호접'과 달리 대상과의 거리가 가깝군.
- ⑤ (다)의 '가파른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나)의 눈부신 '백주'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군.



16. <보기>는 (다)의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높은 산'은 우뚝 서 있어서 외형적으로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겠군.
- ② '낮은 산'의 모습을 통해 소박하고 평범한 삶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③ 나지막이 엎드려 있는 '낮은 산'은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를 의미할 수 있겠군.
- ④ '낮은 산'은 동네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 사는 맛을 알 수도 있겠군.
- ⑤ 구름을 끼고 바람을 맞받아치는 '높은 산'의 모습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24. 이용악, 「그리움」

13. ⑤, 14. ①, 15. ①, 16. ⑤

13. ⑤

(가)에서는 '내리는가'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내면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되려오'를 반복하여 '해바라기'와 같은 의지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아니다'를 반복하여 '높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다'를 반복하여 '낮은 산'과 같은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 ①

[A]의 철길 위를 '밤새워 달리는 / 화물차', '눈 내리는가' 등에서는 동적 심상을 느낄 수 있고, [B]의 '진종일 짝소리 없이 / 삼복의 염천을 노리고 서서'에서는 정적 심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② [A]의 공간은 고향이라는 실재하는 공간이고, [B]의 공간은 화자의 의지를 표상하는 공간입니다.
- ③ [A]에서는 지금 고향에 눈이 오고 있을까 궁금해 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의지의 바다의 한 분신이 되려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 ④ [A]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떠올리고 있고, [B]는 화자의 내면을 의도적 공간 설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⑤ 둘 다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5. ①

(나)의 '새에 서서'에서는 해바라기 밭으로 가서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읽을 수 있으며, (다)의 '구경하고 섰다'에는 앞의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이라는 목적어를 볼 때 '단절감'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친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③ (나)의 '노리고 서서'에는 '삼복의 염천'이라는 상황에 대한 대결 의지가, (다)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에는 '짧은 쌍'에 대한 포용적 자세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 ④ (다)의 '낮은 산'은 '휘파람새'의 노랫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아는 존재이므로, '낮은 산'과 '휘파람새'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나)의 '해바라기'는 '호접도 못 오는 백주'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해바라기'와 '호접'의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다)의 '가파른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눈부신 '백주' 역시 '호접도 못 오는'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접근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⑤

(다)는 '높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도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통해 평범하고 소박한 삶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화자는 '높은 산'과 같은 고고하고 당당한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산'의 모습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회생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산'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5.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①

[2008.03 교육청 고3]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흥운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들에 갈아  
 시퍼런 무쇠냄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세속의 나그네는 이르지 않는 곳  
 올라보니 뜻도 생각도 절로 맑아  
 산 모습도 이 가을엔 더더욱 좋고  
 강의 색도 이 밤에 더욱 흰쿠러  
 백조는 높이 날아 사라져 가고  
 외로운 돛단배 가벼이 가네  
 부끄럽구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반평생 헛이름만 찾고 있구나

俗客不到處  
 登臨意思清  
 山形秋更好  
 江色夜猶明  
 白鳥高飛盡  
 孤帆獨去輕  
 自慙蝸角上  
 半世覓功名

- 김부식, 「감로사차혜원운(甘露寺次惠遠韻)」 -

\* 시우쇠 :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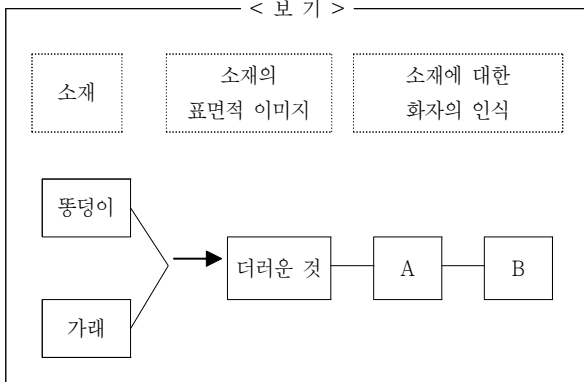
- ① (가)와 (나)에는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상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에는 자신이 가려는 길에 타인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4. (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 중에서 (가)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끼리 묶인 것은? [3점]

<대장간>	<유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공간.....㉠</li> <li>○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갈망.....a</li> <li>○ 대상을 현혹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망.....b</li> <li>○ 자기 스스로의 매력에 도취되어 살고 싶은 희.....c</li> </ul>

- ① ㉠ - a
- ② ㉡ - c
- ③ ㉠ - a
- ④ ㉡ - b
- ⑤ ㉠ - c

15. 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똥덩이**와 **가래**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u>A</u> | <u>B</u>       |
| ① 망각의 대상 | 화자의 발견한 모습     |
| ② 망각의 대상 | 화자의 감추고 싶은 모습  |
| ③ 배출의 대상 | 타인에 대한 화자의 동정  |
| ④ 배출의 대상 |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연민  |
| ⑤ 배출의 대상 |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 |

16.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雪]’의 상징  순수, 결백, 정화 시련, 냉혹함 .....	‘눈[眼]’의 의미  ■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	--

- ①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정화된 시선을 뜻한다.
- ②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순수한 생명력을 뜻한다.
- ③ 결백함과 불순함이 혼재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뜻한다.
- ④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화자의 나약함을 뜻한다.
- ⑤ 닳쳐올 시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뜻한다.

17.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외부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⑤ 색채를 대비하여 계절의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25.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13. ㉡, 14. ㉢, 15. ㉤, 16. ㉡, 17. ㉣

13. ㉡

(가)의 화자는 자신이 값싼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고, 직지사 해우소의 똥덩이처럼 느껴진다고 하여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의 화자는 산 위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반평생 동안 헛이름만 찾으며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14. ㉢

(가)의 제목은 '대장간의 유혹'이다. 이때 '대장간'은 어떤 공간이고,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제목을 통해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간'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많은 쇠를 단련하여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도 그런 공간에서 연단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유혹'은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말인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진정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갈망을 '유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 ㉤

(가)에서 '똥덩이'는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비유한 대상이다. 마치 '직지사의 해우소'에서 아득하게 떨어지는 존재, 배출해야만 깨끗하다고 느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에서 '가래' 역시 화자가 '뱀'으로써 정화된 느낌을 지닐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두 소재의 공통점은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존재이며, 화자의 부정적인 속성,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 ㉡

(나)의 '눈은 살아 있다'는 매우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눈'은 자연물로서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자료에 의해 '순수, 결백'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그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현실 비판의 능력을 지닌 순수한 생명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17. ㉣

(다)는 세속의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 가을 산에 올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연의 상황, 즉 가을의 산, 강, 백조, 뚝단배 등의 외부 상황을 묘사한 다음, 자신이 헛이름을 추구하며 살아왔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내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2010.06 교육청 고2]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떡밤중 한밤중 새터 증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뉘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 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리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법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버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 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나)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중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짝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몇 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골목을 들어서시는 계집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닳을 내린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 광재구, 「절망을 위하여」 -

(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들에 갈아  
 시퍼런 무쇠냄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A]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 시우쇠 :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일상에 매몰된 도시민의 애환이 담겨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에는 시적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가 형상화되어 있다.

23.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② 반어적인 기법으로 시적 대상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나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④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어조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24. <보기>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시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공동체의 삶을 형상화한 시에는 곧잘 **욕망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뒤섞여 나타난다. 전자는 결핍 상태를 채우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을, 후자는 욕망을 억누르는 제약 조건을 함축한다. 이 두 언어는 상충할 때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화 속에서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 ① (가)의 '그들'과 (나)의 '우리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 ② (가)의 '어둠'과 (나)의 '어둠'은 욕망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제약 조건을 상징한다.
- ③ (가)의 '빈 배'와 (나)의 '마음의 배고픔'은 현실이 결핍 상태를 암시한다.
- ④ (가)의 '마늘 한 집'과 (나)의 '종이배'에는 소박한 바람이 함축되어 있다.
- ⑤ (가)의 '뭇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것과 (나)의 '풀포기와 별빛이교자 했다'는 것은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정체성을 상실하는 공간이다.

26. <보기>는 [A]를 모방하여 지은 시구이다.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차가운 아스팔트  
 그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낙엽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불현 듯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그마한 들꽃이고 싶다.

- ① [A]와 같이, 풍자적 수법으로 화자가 처한 현실을 제시한다.
- ② [A]와 같이, 하강 이미지를 살려서 시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 ③ [A]와 달리, 화자의 개인적 소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 ④ [A]와 달리, 대조적인 이미지로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⑤ [A]처럼, 통사 구조를 유지하되 수식어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한다.

## 25.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22. ㉢, 23. ㉤, 24. ㉡, 25. ㉡, 26. ㉠

22. ㉢

(나)에는 절망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다)에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을 이겨내려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 (가)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저항 의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 ㉡ (다)에는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23. ㉤

(가)의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을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어조의 전환과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 시·청각적 이미지로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 ㉡ 시적 대상의 가난한 상황을 '오죽이나 가버울까'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이 개 좃으니', '남이 아니다', '가법지만(가버울까)' 등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 ㉣ '-니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24. ㉡

(나)의 '어둠'과 달리 (가)의 '어둠'은 시간적 배경으로, 선제리 아낙네들이 정답고 의중계 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므로 욕망을 억누르는 제약 조건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 '마늘 한 접'에는 물질적 결핍 상황을 해소하려는 아낙네들의 바람이, '종이 배'에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25. ㉡

㉠이 땅'은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곳으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오답피하기]

- ㉠ ㉠은 아낙네들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 ㉢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 ㉣ ㉣은 화자가 찾아가고자 하는 대장간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 ㉤ ㉤은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26. ㉠

[A]에는 '직지사 해우소의 똥덩이'에, <보기>에는 '차가운 아스팔트를 나뒹구는 낙엽'에 비유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풍자적 수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답피하기]

- ㉡ <보기>에서도 하강의 이미지('떨어져')를 살렸습니다.
- ㉢ [A]에는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으나, <보기>에는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개인적 소망은 물론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사회적 소망도 드러나 있습니다.
- ㉣ [A]에는 '똥덩이'와 대조되는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기>에는 '낙엽'과 대조되는 '들꽃'이 드러나 있습니다.
- ㉤ '~느껴질 때, ~고 싶다'는 통사 구조를 유지하되,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 자그마한'을 더해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2015.09 교육청 고2]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於口)에 그들은 때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와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속이 팍 찬 배추가 분디 속부터  
단단하게 웅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일 속일일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 중 땅에 가까운 잎 몇장이 스스로 곁일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불\*을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

\* 결구 : 호배추나 배추 따위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

\* 알불 :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 토막이 무엇에 싸이거나 담기지 않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계절의 순환에, (나)의 화자는 특정한 계절에 주목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나)의 화자는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세계를, (나)의 화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여행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실행민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보며 깨닫게 된 자신의 내면을, (나)의 화자는 한 공간에서 대상을 지켜보며 터득한 삶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짧은 의문문과 평서문을 연달아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나무로부터 받은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삶의 모순에 대한 거부감을 열거와 영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대구를 통해 몸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배추의 결구가 생기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 : 새로 알게 된 삶의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에게 자연은 창작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자연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이자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을 건네거나 감정을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에서 자연은 때로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때로는 지친 삶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때로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나타나게 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군.
- ② (가)에서 화자는 '내 안에 뿌리를' 편 나무들의 여러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군.
- ③ (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나무는 화자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배추에게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배추의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군.

## 27. 김선우, 「빌려줄 몸 한 채」

43. ⑤, 44. ②, 45. ①

43. ⑤

(가)의 화자는 여행의 과정에서 만난 여러 나무의 모습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삶의 이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공간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어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배추의 모종을 심어 배추를 기르면서 발견한 삶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이 깨달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 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계를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화자 역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44. ②

화자는 여행에서 만난 나무를 통해 인간의 삶이란 목중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며, 때로는 고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과 같이 열거와 영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목중·침울·고독은 화자가 여행을 통해 발견한 삶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에 거부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5. ①

화자는 여행길에서 만난 '목중한', '침울한', '고독한' 나무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고독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답피하기]

- ② (가)의 화자는 나무가 자신의 안에 뿌리를 펴고 있으며, 자신이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해 목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 ④ (나)의 화자는 배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 ⑤ 배추가 처음부터 속이 팍 찬 상태로 자라는 줄 알고 있었던 (나)의 화자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28.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해설없음)

[2005 예비평가 고3]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A] —  
아늑한 이 항구—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갈짜기마다 밭에 익은 낫부리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이— 사랑하던 사람들

㉠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잇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 경청한다

[B] —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황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함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때때로 머리 들어 @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에 지게 한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주(海醜) 흉모(兇謀)\*에 큰 수치를 안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되어 있었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가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命脈)이 이었으니  
서절구투(鼠竊狗偷)\*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해주 흉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서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화자의 무력감과 환멸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청년기 시인의 낭만적 열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역설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A]와 [B]가 작품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A]는 화자가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B]는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을 보여 준다.
- ② [A]는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B]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③ [A]는 화자의 소중했던 과거를 함축하고, [B]는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
- ④ [A]는 화자를 상상에 몰입하게 하고, [B]는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 ⑤ [A]는 화자의 감상성을 드러내고, [B]는 힘찬 의지를 나타낸다.

17. ㉠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유치환, 생명의 서 -
- ②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③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땀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 김지하, 서울길 -
- ④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 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꺾개로 흘러/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18. <보기>는 (나)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 ①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이 작품은 상황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 ② 이 작품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정작 시인은 현실을 풍자하려고 한 게 아닐까?
- ③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는데, 시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닐까?
- ④ 영화 관람을 일상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사건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
- ⑤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어느 시대애나 있는 보편적 인간의 모순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19.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들어갈 시구를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전체 시상의 흐름에 맞게 구성한다.
- 화자의 신분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다.
- 가급적 현대어로 쓰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① 적의 배에 달려 들어 선봉을 무찌르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 ② 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 ③ 가을 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바다 물결 없는 평안함을 다시 보려 하노라.
- ④ 이 강산 부평 같은 어부의 삶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런고.
- ⑤ 바람 좇은 구름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20.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점]

- ① ㉠은 떠나는 자신을 받아 줄 알맞은 조건을 의미한다.
- ② ㉡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⑤ ㉢는 시의 주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28.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5. ④, 16. ②, 17. ③, 18. ④, 19. ①, 20. ④

(해설없음)

29.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담이의 편지」

[2008.10 교육청 고3]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嗚嗚)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II」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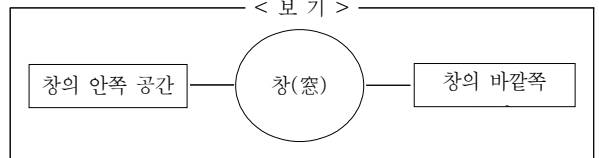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뎡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담이의 편지」 -

13. (가)~(다)를 <보기>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의 안쪽 공간에 있다.
- ②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 (다)와 달리,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창은 (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 ④ (나)의 화자는 (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⑤ (가), (나)의 창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빗갓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 ①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성에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에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1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예찬적인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29.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뒤편의 편지」

13. ①, 14. ⑤, 15. ④, 16. ④

13. ①

(가)의 화자는 창 안에서 창밖의 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데, 창 안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의 화자는 유리창뒤편으로 고층 빌딩의 창밖에서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화자는 창의 안쪽 공간에, (다)의 화자는 창의 바깥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 ⑤

(가)에서는 '사람은 맨날 변해 썩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는 '업동 혹은 일수록 / 선연히 피어나는 성에꽃'과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차가움의 이미지와 따뜻함의 이미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15. ④

(나)에서 화자는 성에꽃을 보면서 서민들과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데, 작품의 마지막 두 행을 보면 (나)에는 암울한 시대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사람도 성에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16. ④

(다)의 화자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으며 창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30.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❶

[2002.06 교육청 고3]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닦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랴.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梅花) 향기(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曠野)」 -

(나)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①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잡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췌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펴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엔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

- \* 샷 : 샷자리, 갈대로 엮어서 만든 자리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들었다.
- \* 딜용배기 :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짚그릇. 질용배기
-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를 태워 담은 화투불
- \* 나뭇손 : 저녁 무렵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시간적인 배경이 겨울로 설정되어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 ④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진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1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연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자연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미적 감동을 준다. 더 나아가 자연은 인간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방법을 자연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 ① (가)의 ‘바다’
- ② (가)의 ‘강물’
- ③ (나)의 ‘장마’



30.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❶

17. ④, 18. ⑤, 19. ④, 20. ④, 21. ⑤

17. ④

(가)의 화자는 현재 겨울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 것은 봄이 오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나)의 화자는 어둔 밤을 지킵니다. 이런 행동 역시 언젠가는 밝은 아침이 오리라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다)의 화자가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화자는 모두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소망하는 세계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 ⑤

(다)의 화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화자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 속에서도 정갈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견뎌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화자가 갈매나무를 떠올린 것은 이 나무가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속성과 자태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화자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 ④

(가)의 화자는 지금 눈이 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위에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등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화자가 현실과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충고는 ④입니다.

[오답피하기]

①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인내만으로 상황을 이겨내려 한다는 점에서 (가) 화자의 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20. ④

(나)의 주된 표현 방식은 'A는 누구의 B입니까.'이다. 여기서A는 '자연 현상'이고, B는 '절대자의 자취'입니다. 결국 화자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절대자의 모습을 대하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구는 주로 청각적 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 변형한 것이 ④입니다.

21. ⑤

화자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은인자중입니다. 은인자중이란 참고 견디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30.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㉔

2013.06 교육청 B형 고2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깎,  
한 **꺠**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B]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긔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  
며,  
또 문밖에 나가지두 앉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였다.

[C]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였다.

[D]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장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E]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  
츄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긔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  
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큰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였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 덜용배기 :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를 태워 피운 화롯불.
- \* 나긔손 : 저녁 무렵.
- \* 실 : '잎'의 평안도 방언.

(나)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

열차가 수원(水原)을 지날 무렵,  
서호(西湖)에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추수가 끝난 **들녘**도  
있이 진 **잡목숲**도, **인가**(人家)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果肉) 속이었다.

- 김종길, 「저녁해」 -

\* 골든 델리셔스 : 노란색을 띤 단맛이 강한 사과 품종.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③ 토속적 시어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장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2. (가)의 공간적 배경인 **꺠**를 [A]~[E]와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화자가 가족이나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② [B] : '나 혼자' 누워 있는 단절된 공간으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이다.
- ③ [C] :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④ [D] : 화자가 '천장'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E] : 화자가 '큰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급행열차'의 속도감이 화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 ② '골든 델리셔스'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느낌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 ③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이 잘 익은 '사과덩이'로 형상화되어 있어.
- ④ 차창 밖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은 '눈먼 벌레'로 형상화되어 있어.
- ⑤ '들녘', '잡목숲', '인가' 등의 대상이 황금빛의 색채로 통합되고 있어.

30.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㉔

31. ④, 32. ④, 33. ①

31. ④

(가)는 겨울 저녁이라는 배경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와 연결되며, (나)는 늦가을 오후의 배경이 아름답고 황홀한 분위기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두 시의 공통점은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답피하기]

- ① (나)에는 풍경에 간단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② (나)에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③ (가) '달옹배기, 북덕불, 나춥손, 섶' 등에서 토속적 시어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토속적 시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2. ④

이 시에서 방은 단순한 소재나 배경을 넘어서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④ [D]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운명론적 인식이 '방'에서 형성되는 것은 적절하지만,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3. ①

저녁해가 퍼지는 풍경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화자가 타고 있는 '금행열차'의 속도감으로 형상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피하기]

- ② '골든 텔리셔스'는 시각적, 미각적인 감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 ⑤ 기차를 타고 가며 창 밖으로 보이는 '들녘', '잡목숲', '인가' 등의 대상이 모두 저녁해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